

화창하게 걷는 보통의 부평

내 친구의 산책

보통의 부평
화창하게 걷는

내 친구의 산책



내 친구의 산책을 무료로 한 권씩 드립니다.

#내친구의산책 #부평의좋은곳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상상테이블



해시태그를 붙인 사진을 SNS에 올려주시면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두 권을 드립니다.

작가소개

슬로보트 북극서점 대표이자, 1집 가수, 작가, 기획자, 라디오 방송인 그리고 전직 초등학교 교사. 여러 장르를 넘나 들며 재미있는 일을 찾아 해낸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북극서점에 앉아 마음 따뜻해지는 책을 보는 것.

김응호 가구 공방 호작담 대표. 글과 그림, 사진, 그리고 가구를 짓는다. 연관성 없는 행위 같지만, 결국 모두는 마음을 나열하는 일. 시선 닿는 것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든 결국에는 행복이기를 바란다.

김동균 그림을 잘그리고, 글도 잘쓴다. 누구보다 뒤쳐지지 않는 인천 부평러.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작품활동과 일을 해나가고 있다. 스페이스뽀 상근활동가 및 라디오 작가로 일 했었고, 요즘은 마을활동가로 이 일 저 일에 휩싸여 바쁘게 살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통의
부평
화창하게
건는

내 친구의 산책

슬로보트 김용호 김동균

지역사회의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장소애착의 정도는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개인 별로 독립된 것이 아닌 문화, 경제, 환경, 역사,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성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기 위한 우선적인 실천으로 지역의 구석 구석을 탐미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관점으로 해석된 지역에 자부심을 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면서 지역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다.

도시를 시간이 더해진 공간의 집합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서점, 공방, 카페, 동네 술집 등 삶의 터전과 같은 작은 공간의 모습이 부평의 현재 모습이자 인천의 진면목이다.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 없는 거리의 생동감과 공간의 멋스러움을 분별해 내는 것이 도시가 품고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

이 책은 세 명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성을 투영하여 부평을 읽어낸 길잡이이자 매뉴얼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평의 매력적인 공간과 장소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도를 전했을 때 함께 한 작가는 자연스럽게 산책을 떠올렸다. 점처럼 찍힌 공간을 선형의 이미지로 상상해낸 작가들은 흩어져 있는 제3의 공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투영하며 가치를 부여했다. 사람들이 모이고, 타인에게 체온이 전해지는 취향을 제안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은 지역의 고유함과 차별화됨으로 발현될 것이다.

부평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작가들은 평소 작은 식당에서 든든한 한 끼를 즐기고 동네 책방주인과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는 소박한 삶을 일궈나가고 있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만나는 공간과 장소를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정겨운 도시를 읽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산책자들의 특권일테니.

	책을 펴내며	002
	슬로보트의 산책	007
	: 서점루트	
	에세이	
	산책의 능력	010
	오늘 우리 여기	015
	코모리	021
	북극서점	029
	연꽃빌라	037
	아크커피	045
	카페 5월 19일	053
	사각공간	059
	굴포천	067
	+ 더 가볼만한 곳	072
	김용호의 산책	075
	: 공방루트	
	에세이	
	시간 반대편의 산책	078
	소회 상회	083
	우주방앗간	089
	가구공방 호작담	095
	메이스테이크	103
	작은가게 묘연	109
	부평시장	115
	세라믹스튜디오 길	121
	+ 더 가볼만한 곳	126
	김동균의 산책	129
	: 차밍루트	
	에세이	
	부유할富, 평평할平	132
	산동포자	137
	부평공원	143
	히비끼	149
	부평 철길	155
	유미대교	161
	부평역 지하상가	167
	부평 테마의 거리	173
	매니아	179
	올드벤티즈	185
	깨팔	191
	창고재즈팝	197
	포다쌀국수	203
	온 더 바	209
	부평시장 그림간판	215
	원조고향 손칼국수	221
	+ 더 가볼만한 곳	226
	마치며	
	보통의 부평 _ 노수진	230



슬로보트의 산책

서점루트

오늘 우리 여기 코모리 북극서점 연꽃빌라
아크커피 카페 5월 19일 사각공간 굴포천
+ 더 가볼만한 곳



우리에게
산책하는 마음이
쉽게 머물기를.

늘 지나는 이곳이
그토록 먼 곳인 듯
낮설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열두 살 때 담임 선생님은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초능력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먼저 눈을 감고, 두 집게손가락을 마주 보게 한다.
나의 집게손가락 두 개가 극을 가진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둘 사이의 자력을 느껴본다.
그것에 성공했다면 양 손바닥을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며
둘 사이의 자력을 느껴본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자력으로 동전을 밀고 컵을 떨어뜨리겠다는 녀석들도 나왔다.
참으로 대단한 초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이제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의 초능력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셨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아이들은 단지 책을 꺼내지 않았다는 환희로 들떠있을 뿐이었다.

초능력을 확인하려면 둘 사이의 자력을 느껴보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것을 의식하면 어느새 차갑고 공허한 둘 사이에 따뜻하게 부푼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것이 초능력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단련하기 위해 소림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다만 늘 가던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본다. 빠른 길을 두고 굳이 새로운 길로 돌아가 본다.
문 열어보지 못한 곳의 문을 열어본다.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앞에 멈추어
한참 들여다보기도 한다. 말 걸어보지 않았던 이에게 말을 건넨다.
예를 들면, 빵집에서 늘 사던 빵을 사며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같은 시시한 말.
정성을 들인 산책은 세상과 나 사이의 자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 발견해주는 것.
움트게 하는 것. 나에게로 와 끝내 꽃이 되게 하는 것.
마음이 고단하고 시름이 깊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산책하러 나간 적이 있다.
정말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의 철길을 걸어 작은
수목원을 걸었고, 수목원 너머의 가지 않았던 길을 따라 시시한 시가
곳곳에 적혀있는 동산을 찾아냈다.

진창이 된 길을 만나 위기감을 느끼며 사력을 다해 탈출했다.
집 밖에는 어떤 식으로든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알지 못했던 곳의 틈새를 반가워하며 그것으로 슬픔이라든가
고통의 엉덩이를 자리에서 조금 밀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들은 미지의 틈새를 발견하기 위해
그 멀고 험한 우주까지 가서 갇은 수모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뭐 그럴 것까지 있나, 우리에게도 우리 동네가 있다.
우리 동네. 익숙해서 안심인데 알고 보면 모르는 것투성이,
다행히 알고자 하면 다정하게 눈을 반짝이며 대답해줄, 나의 동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점심에 민들레 홀씨가 친구의 머리 위에 앉는 순간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다.
주섬 주섬 가방을 챙겨 퇴근길에 오를 때에
주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흰 고양이를 만나리라고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소박한 산책길에라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휘휘 걸으면 나와 주파수를 맞추어 줄, 저 스스로가 예쁜 줄도 모르는
천진한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서점
루트

인터뷰
01

좋은 사람과 작게 속삭이고 싶은

오늘 우리 여기

설립연도 2017년 8월
대 표 김태영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6번길 12, 3층
영업시간 12시~22시, 수요일 휴무
전화번호 032.362.0616
작 석 수 4석
공간소개 계단, 화장실, 창고 등 포함 전용면적 13평
공간대여 불가
프로그램 북모닝굿모닝, 플라워클래스,
 오늘우리여기 오브젝트 등
S N S blog.naver.com/ooo_coffee
[instagram.com/ooo_coffee](https://www.instagram.com/ooo_coffee)



“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공간이 걸어 다닐 수 있다면,

”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공간이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어쩐지 숲속으로 걸어가 퍽하니 앉 아있는 것 같은 공간이 있다. 자연스러움과 정성스러움. 그 모든 것이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 눈에 잘 띄지 않 는 정갈하고 작은 간판을 발견하고는 그 배포에 마음으로 웃음이 나고, 차분한 조명 아래 좁고 오래된 나무 계단 을 오르면서 이것이 하나의 의식 같다고 생각한다.

바깥의 소음과 잡생각들을 털고 들어가는 의식.
빈티지 소품 사이로 천연덕스럽게 놓여있는 어린 식물들.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하고 가벼운 기운들.
좋은 사람과 작게 속삭이고 싶은 카페, 오늘 우리 여기.

O, O, O
오늘 우리
여기

처음에 저희가 첫 커플링 뒤에 새겼던 말이에요. 내일을 살고 언젠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오 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가치를 담고 싶어 그것을 반지에 새겼습니다. 저의 가치 관 그대로 담긴 이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평에 살았어요. 인천은 서울과 근접해서 자 기만의 문화가 안 생기는 게 있는데 이곳이 내 고향이고 건물마다 추억이 깃든 곳이니 이곳 에서 우리가 진심인 공간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 분이 오셔도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는 곳. 치유 받으며 책을 읽는 공간으로요.
얼마 전에는 태국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 3년을 살다가 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5시간 을 앉아 책 읽고, 노래도 듣다가 가셨지요. 그분에게 혼자 여행을 하던 중에 들를 수 있는 공 간으로 느껴진 점이 저희 둘 다 기분 좋았어요.

식물과
커피

원래 식물에 관한 일을 했거든요. 이곳에서도 꽃에 관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꽃을 알 기 전과 후가 많이 변했거든요. 이 복잡한 도시에서도 꽃과 나무가,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했 어요. 사물을 보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 럼 그 사람의 눈에도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자연물이 눈에 띄지 않으면 그저 네모난 세상뿐이잖아요.
카페 안에 일주일마다 하나씩 꽃을 가꾸어 놓아요. 직업이었을 때, '꽃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 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꽃은 꽃대로 그냥 예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자, 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순간 탁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카페 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담았습니다.

커피를 맡은 남자 사장님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을 다 이해해요. 음료도 기호식품이니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좋은 거로 생각해요. 다만 먹을 줄 모르는 유행 타는 커피를 주문해서 사진 찍는 용으로만 쓰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 저도 처음에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커피를 접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 참 마실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커피를 잘 내려주시는 분들을 접하면 커피도 마셔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아침 독서 모임 BOOK MORNING, GOOD MORNING.

요즘 커피 추세는 뒷맛이 깔끔한 것이지만 저는 잔 맛, 잘 나올 수 없는 맛,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장 달달한 커피는 '5월 23일'이라는 커피예요. 시그니처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만난 날짜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첫눈 오던 날에'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아, 그럼 여름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같은 메뉴는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메뉴는 다른 곳에서도 모두 팔고 있으니까요. 저희만의 메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약간 낯설지만 재미있는 메뉴들을요.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뭔가 눈앞에 있지 않으면 뭘 하지 않아요.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카페 준비와 일과를 지내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데 저를 위해 책 읽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계기가 없으면 자꾸 미루게 되는 저를 알기에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자, 나와 비슷한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읽자, 아침에는 바람도 불고 햇빛도 좋으니까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북모닝, 굿모닝. 좋아하는 책은 제주에 계신 최예지 작가님이예요. '의외로 간단한' 이라는 책입니다. 사인까지 받아왔어요. 요새 관심이 있는 책은 생각을 일깨우는 철학책이나 저와 멀리 떨어진 주제들, 그러니까 고래, 세계의 광장, 외딴섬을 다룬 책들에 관심이 있어요.

평리단길 이라니

이 동네도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면 괜찮은 동네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평리단길'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만의 특색이 없는 느낌. 유행에 따라 너무 급변하고 알맹이가 많이 없고 그런 게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서점
루트

인터뷰
02

조용한 영화 속에 있는 기분

코모리

설립연도 2018년 6월
대 표 김성훈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1-83,1층
영업시간 13시~20시, 화요일~수요일 휴무
좌 석 수 최대 19석
공간규모 19평
공간대여 불가
S N S [instagram.com/_komori](https://www.instagram.com/_komori)



“

작은 숲의 고즈넉함을 담은
편안함

”

산책할 때 일부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러면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쌓인 곳에 발자국 남기는 기분을 한여름에도, 가을에도, 봄에도 느낄 수 있다. 어느 날, 서점으로 출근하는 길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두근거리며 들어섰다가 햇빛이 들어앉아 하얗게 단아해 보이는 집을 만났다. 아니, 그런데 집이 아니다. 아주 조그마한 간판을 발견했다. 나무 목 세 개가 모인 글자. 코모리. 작은 숲. 이게 무슨 일인지.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 일본의 교토 어딘가로 순식간에 와버린 기분이 드는 영동한 곳에 작달막한 푸딩, 두툽한 후르츠 샌드위치와 타마고 샌드위치가 있다. 초록으로 잔뜩 채워지지 않아도 숲 가운데 있는 듯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미 입소문이 나서 날을 잘못 고르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북극서점 바로 근처이니까요. 아이고, 신나라.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모리.

마음에 드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

한적한 곳,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을 원해서 이름을 작은 숲, 코모리로 지었습니다. 비록 주변에는 초록이 없지만요. 저희는 20년 인천 토박이입니다. 자본금이 얼마 없는데 이것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망원동, 이태원도 봤는데 서울로 가려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는 곳도 아니고 텃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곳, 그중에서도 조금 더 외진 곳을 찾았어요. 원래는 부평의 메인 상권에서 초장기부터 가게를 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며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가게를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곧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새로 옮기면서는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확 가라앉는 곳을 피하고 싶었고, 알음알음 저희를 아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 마니아들만 모일 수 있을 수 있는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평은,

부평은 인천의 중심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동인천에서 살았는데 부평이 뭔가 변화해 보이고 유행에 민감해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면 부평에 와서 하릴없이 걷고요. 서울과 가장 가까워서 그런지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행에 너무 민감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식빵이 유행이면 식빵 집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처럼 체인점을 열거나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을 바로 따라 하다가 바로 접어버리는 것이 아쉬워요.





땅콩 식당에서 카페 코모리로

저희 아버지께서 일식 조리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었지요. 원래는 바리스타로 일을 했는데 요리가 좋아 취미로 하다가 땅콩식당을 열었어요. 입소문이 나 10평의 가게에 하루에 40, 50분의 손님이 오셨는데 혼자 일하다 보니 힘이 들어 일에 질리고 말았어요. 더 차분하고 사람이 없는 정적인 공간을 찾다 보니 이곳에 열게 되었습니다. 취향도 변해서 예전에는 아기자기한 것은 모두 모아놓았는데 이곳에서는 단정하고 미니멀하게 지내고 있어요.

조용한 영화 속에 있는 기분

뭔가 진부하지만, '카모메 식당'을 좋아해요. 다섯 번 봤어요. 사운드가 없는 부분이 좋아요. 요리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거나, 소리가 없는 부분이 좋아요. '리틀 포레스트'도 좋아하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먹는 사람의 태도, 분위기, 같은 것이 제 롤모델입니다.

월요일, 목요일에는 손님들이 한 분씩 오세요. 혼자 커피 한 잔에 디저트 한 점시를 시켜놓고 책을 읽으시는데 가게의 음악과 그분의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릴 때 참 행복해요. 그럴 때는 다른 손님들도 조곤조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도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천천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느껴지고요.

잘 쉬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휴식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쉬니까 영화도 보고, 먹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방안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게 진짜 휴식 같아요.

저희가 아파서 2주일을 쉬었거든요. 그렇지만 가게 생각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남자 친구와 함께 데이트하는데도 둘이 카페 일 얘기를 해요. 쉬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식당과 카페는 노동 강도가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고정 메뉴가 있어서 확실히 편해졌고 남자친구가 커피를 해서 일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 식당을 했을 때는 매일 메뉴를 바꾸어 반찬 세 가지, 메인 반찬, 국까지 온종일을 쏘아도 다음날까지 바빴어요.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여, 오세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상처를 깊게 받는 편이에요. 땅콩식당 할 때는 식당 리뷰를 다 봤어요. 매일 매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식당이라면 '짜다, 싱겁다'라는 평가가 당연한데도 그 말이 마음에 톡톡 박혀서 아, 그랬나, 하고 자책을 했어요. 밤새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곳에 카페를 열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내 입맛에 맞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가 나와 비슷한 분들이 오시면 된다고요. 푸딩 하나를 디저트로 정하려면 최소 열근 데는 가 봐요.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보다는 내 취향의 맛을 지향합니다. 저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주의예요. 어쩌다 한 번 먹으니 이왕이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서점
루트

인터뷰
03

책들이 위로될 때,
북극서점

COLLECT BOOK
&
VINTAGE

북극
서점

설립연도 2016년 12월
대 표 슬로보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477-2
영업시간 비정기 휴무,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공지
좌 석 수 북극홀 테이블 8석
공연 및 강연(테이블 없이) 20석
공간규모 5평
공간대여 강좌 개설, 모임 등 일반 대여. 3시간 20,000원.
전시 1일 15,000원
프로그램 북극홀 미술 전시, 스페인어 동화책 드로잉,
대중음악사 등 문화 강좌 피드 공지
S N S [instagram.com/bookgeuk](https://www.instagram.com/bookgeuk)



“

겨울에 북극서점을 처음 열고
한참 눈이 왔다.

”

겨울에 북극서점을 처음 열고 한참 눈이 왔다. 노란 불이 켜진 서점에 잘 앉아있었다. 고개 숙인 사람들은 목도리를 여미며 걸어가고, 눈은 사람들이 걷는 방향으로 날리고, 나는 작은 온풍기와 함께 털신을 신고 풍경을 바라보았다. '북극 서점'이라고 쓰여 있는 유리문 덕분에 이곳이 정말 북극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여기는 북극이야.' 책방은 온통 어느 수종인지 모를 나무들로 가득하다. 책은 나무로 만들어 지니까 책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숲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여기는 또 숲속이네. 숲속.'

책방에서 자주 듣는 음악은 기타 하나에 목소리 하나, 혹은 LP 질감으로 녹음된 옛사람의 목소리. 언덕 위에서 산들바람을 맞는 기분으로 보사노바. 때로는 호수의 반짝이는 물비늘이 느껴지는 클래식. 그게 아무리 헤비메탈이라도 어울리지 않을 리가 없다. 책방에는 수백 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중 하나는 그 음악과 호응한다. 서점을 연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어릴 때 읽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 비밀스러운 기분이 든다. 남들이 샘날까 봐 그걸 혼자 몰래 즐기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랑도 해보고 고백도 해본다. 북극서점을 마음 깊이 사랑한다. 나를 이곳까지 데려와 준 그동안 읽은 모든 책을 사랑한다. 아잇, 눈물 나네. 늙었나 보다.

이토록 가볍게 시작했지만

13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을 실키트 해치우며 널브러져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5평, 보증금 200에 15만 원인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같이 쓰자고. 두 시간 만에 그곳을 계약하고 카페에 앉아 서로 빙구 같은 말들만 주고받다가 서점이나 해볼까, 너랑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다 놓은 서점. 이렇게 만나절도 안 되어 너무 간단히 진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퇴직하고 서점을 해보고 싶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인천의 부동산을 자주 들락거렸지만, 월세가 감당 안 돼서 반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토록 가볍게 시작했지만 어쩌면 평생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 서점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 이 조그만 서점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 생각보다 오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에는 북극서점이 사라질 위기가 왔었어요. 통장이 드디어 바닥을 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운영하던 친구가 임신하며 동업을 그만두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도 길어야 2달,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 강연이나 축제 기획, 책 쓰는 작업 등 애를 쓰면 저도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사실 혼자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라서 엄살을 부리자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일만 했지만, 이상하게 그게 하나도 서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고 나면 에너지가 또 생겨서 모두 다 새날이고, 나이를 먹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도 뛰고, 이게 불안해서 뛰는 건지 즐거워서 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부평,
부평

어린 시절을 동인천에서 보냈는데 부평은 뭔가 어른들이 가는 동네 같은 인상이 있었어요. 이름에 '부'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부자 동네 같아서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어린 마음에 구경할 게 너무 많고, 신나고, 같은 오락실도 뭔가 멋지고 그랬어요. 부평도 이제는 낯은 원도심이 되었지만, 부평구청 주변에 멋진 가게들이 쭉 생겨나며 뭔가 젊은 기운이 태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평 하면 '이런 부평 초 같은 인생'이라는 할머니 같은 말만 떠올라서 서점에 개구리밥이라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어, 할미는 그게 참 기뻐.

고마운 것들이
자꾸 늘어난다

서점을 하며 만난 손님들, 동료들, 고마운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분들 집 앞에 호랑이라도 잡아다 드리고 싶는데 호랑이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 마음은 넣어두고 있어요. 다행히 잘 안 팔리는 저의 앨범 슬로봇 1집이 집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로 보은하며 사람 구실은 하고 삽니다. 서점 옆에 작은 미술관을 새로 계약하며 팬이었던 작가님들을 서점에 초대하고는 제 덕질을 잔뜩 하기도 해요. 가을에는 송도 아트북 페어를 기획하며 덕질 대장정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는데 비가 오고 행사장에 뒤통수습할 일이 있어 작가님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해요. 조그만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데 특히 좋아하는 일은 라디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경인방송 '황순유의 해피타임 907'에서 '책방 언니의 책 바구니'라는 코너로 월요일마다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너무 사랑해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간 적도 많았거든요. 작은 코너지만 제가 아끼는 책과 위로가 되었던 음악을 함께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아직도 어리둥절하고요.

서점에 간다는
멋진 일

사실 일반 출판사에서 좋은 책들, 꼭 필요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북극서점에서도 신간의 판매율이 훨씬 높고요. 그런데 독립출판물을 통해서만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무릎을 치는 새로움, 나와 같아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평범함, 이 책이 아니면 이 외진 주제는 아무도 다루지 않을 것 같은 유일함. 독립서점을 하며 새로운 인생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책은 다시 없을 거야, 라는 감탄사와 함께 그 책들을 소중히 여겨요. 방새미 작가님의 우미 이야기, 블래터 작가님의 파란 자아 이야기, 김봉철 작가님의 30대 백수 쓰레기의 일기 등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우리가 항상 될 너



무 열심히 하잖아요. 힘을 빼고 제멋대로 만든 책들이 위로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해보고 싶어서 혼자 정성을 다한 책들에서 받는 에너지도 있고요. 서점에 온다는 것은 맛있는 일입니다. 멋을 부리면 허세라고 하며 쓸모없는 일처럼 비하하는데 멋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자수가 갖고 싶어서 자수를 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처럼, 책을 갖는 과정에도 멋이 깃들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북극서점으로 살랑살랑 멋있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서점
루트

인터뷰
04

초록빛 생기로운

연꽃빌라

설립연도 2018년 12월
대표 김보름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47번길 8-12 1층
영업시간 평일 12시~23시, 일요일 12시~20시
 목요일 휴무
좌석수 7석(1인석 포함)
공간규모 20평
공간대여 가능, 비용 협의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소모임, 전시 등
S N S blog.naver.com/kimbiub
 instagram.com/kimbiub
이메일 kimbiub@naver.com



“

북극서점의 첫 번째 이웃 책방,
연꽃빌라.

”

사장님께서 제가 말을 잘 못 해서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그게 매력이에요. 라고 대답한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살포시 마음에 앉는 것 같고 모두 중요한 말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수줍어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화창한 연꽃빌라에서는 무엇이든 자연스럽다. 가만히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아도,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내가 이곳에 잘 녹아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마실 거리와 디저트도 서로 잘 있다. 서로라는 말이 잘 어울리게 각자를 빛내주는 조화로운 맛이다.

책들도 그곳에 잘 있다. 매끄럽고 고운 얼굴이 잘 보이게 정성스럽게 놓여있다. 책들 사이를 산책하는 기분이 드는 쾌적한 서가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연꽃빌라이고, 이 빌라에서는 여러 존재가 어울려 지나침 없이 잘 있는 것이다. 사람과 커피와 책과 달콤한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좋은 친구들이니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연꽃빌라

제가 하루키를 참 좋아해요. 그분의 책을 인용해서 가게 이름으로 '해변의 카프카'도 생각했었어요. 해변이 아닌 곳에 해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좋아서요. 타샤 튜더(Tasha Tudor)처럼 책방 타사도 생각했는데 둘 다 이미 있어서 접었어요. 책방과 커피가 함께 있으니 그저 공간에만 의미를 두고 무례 요코(群ようこ)의 책 제목을 따서 '연꽃빌라'라고 짓게 되었어요. 저희는 부부가 모두 커피를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책방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방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책방 사장님들께서 투잡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커피라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간적 어려움이 컸어요. 잘못 생각하면 카페를 유지하기 위해 책을 소품처럼 놓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반반으로 하고 책에 중심을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하고 싶은 일의 윤곽이 잡혔어요. 사실 그동안은 이것도 재미있어 보이고, 저것도 재미있어 보여서 손을 많이 댔는데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꽃빌라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을 닮은
공간

동네에 이 잔디 하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저는 자연적인 색을 좋아해요. 물색, 산색. 일단 초록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초록, 흰, 여유.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 부평을 다시 봤어요. 다른 곳보다 문화 행사도 많고요. 인천에서 이런 문화 사업이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서점을 통해 이것저것 많은 행사를 열어주셔서 좋았어요.







잘 쉬다 갑니다

손님 중에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잘 쉬다 갑니다. 생각 정리하고 갑니다, 하면 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인데 모두가 책을 읽고 계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책만 볼 때 카페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꼭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을 차린 느낌. 책을 읽지 않고 있어도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제가 사교적이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대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책을 읽거나, 수영하거나, 여행을 간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것도 좋아해요. 표정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고 꼭 제가 그것을 직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끼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들

저는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쓰는 것, 그리는 것. 그래서 디저트 메뉴도 제가 책을 보고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홈베이킹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만들면서 아끼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해요. 손님들도 먹거나 마셔보면 숨겨놓은 재료의 맛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도 많은 분이 알아주세요.

좋아하는 책들

인터뷰 읽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꾸며진 듯한 인터뷰가 많았는데 요즘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책방 사장님들 이야기를 읽었는데 힘든 이야기도 가감 없이 하는 걸 보고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위로를 많이 받고요. 책방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가게를 연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책방 운영이 원래 힘든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따뜻해요. 윤익진 작가님의 작품도 좋아합니다. 휘리 작가님 그림도 진짜 좋아해요. 딱 좋아하는 자연의 색감. 보고 있으면 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365일 소박한 레시피와 일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책처럼 직접 연꽃빌라의 사계절을 담아내고 싶어요. 서비스직을 하며 사람에게 지쳐서 말을 하는 게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작가님들이 서점에 찾아오실 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오시는 분 중 다랑 작가님처럼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 그날은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미또 프로젝트 작가님은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어른 같고, '19세 마음이 고플 때'라는 책을 쓴 작가님께서도 도시락을 싸주세요. 밥도 제대로 잘 못 먹는다고 걱정 해주시고요.

서점
루트

인터뷰
05

커피와 비건 디저트

아크커피



설립연도 2018년 3월

대 표 황경주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46번길 8-8

영업시간 12시~23시, 일요일·마지막주 월요일 휴무

좌 석 수 31석

공간대여 불가

S N S [instagram.com/arkcoffee_vegan](https://www.instagram.com/arkcoffee_vegan)



“

Never be afraid to try
something new.

”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원의 말을 간판에 적는 분이라면 참 힘찬 사람일 테지. 입구에 강아지를 위한 무료 간식 바구니를 마련해 놓는 분이라면 당연히 속 깊은 분일 테고. 묵직하고 정갈한 가구들로 각이 잡힌 아크커피에는 강렬한 색채의 그림이 투욱 놓여 있다. 이 그림을 고른 사람이 몰래 꿈꾸는 자유로움을 엿본 것 같다.

지레짐작하는 버릇은 나쁜 것이니 좋은 기대라고만 해두겠다. 어느 공간에 가면 그곳을 만든 사람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때가 있다. 그 힌트가 많을수록 재미를 느낀다. 사람의 내부에 초대되어 잘 누리고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좁고 어두운 토끼굴 같은 우리 북극서점에서 벗어나 넓고 화창한 아크커피에 가면, 비로소 내가 의외로 코스모폴리탄이며 천생 도시 여자일지 모른다는 착각이 든다.

버스 여행을 하다가 발견한 자리

인천은 저희 부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저희 둘은 중학교 때부터 서로를 지켜보았던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지금은 부부로서 함께 하고 있어요.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부부라는 느낌을 너무 주게 되면 손님들께서 내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인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친밀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서로를 빵 사장님, 커피 사장님이라고 불려요. 저희 아이와 함께 버스 여행을 자주 해요. 인천공항으로, 서울로, 부천으로 세네 시간 이상을 타도 안전하고 주변의 풍경이 계속 변하는 게 재미있어서 아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24번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곳을 발견했어요. 차들에 가로막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풀과 나무가 있는 이곳이 정원처럼 느껴져서 반했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 맞는 일이지 싶어 이런저런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베이킹이 저에게 가장 맞는 일 같아요. 빵 만드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베이커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전에 남성 의류샵을 운영하며 웹디자인을 직접 배워서 만들었는데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동안 웹디자이너로 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공들여서 만들어도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작업물이 더는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 저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기분이. 그런데 빵을 만들어 손님에게 직접 전해드리는 것에는 그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정성을 쏟아 만들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도 슬픔이 없고 오히려 드셨을 때 행복했어요. 성격이 급해서 두 시간이면 완성되는 빵이 좋기도 하고요.





커피와 비건 디저트

커피 사장님은 커피를 잘 안 드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아무 커피나 다 먹지만 사장님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세요. 커피는 성실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리 갈아놓은 원두를 통에 담아놓는 곳도 많지만, 사장님은 한 잔을 내려도 원두를 꺼내어 그때마다 일일이 갈고 담아내며 모든 과정에 정말 정성을 다해요. 저는 그런 사장님이 멋있어요. 그렇게 고수하고 지켜가는 모습이. 본인이 뭔가 맛이 다른 것을 느끼면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비건 디저트를 만드니까 비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찍 와서 좋은 재료를 사용한 비건 디저트를 만드는 것은 모든분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비건은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입니다.

강아지도 단골손님

강아지를 데리고 자주 오시는 손님께서 오실 때마다 강아지가 의자 밑에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나 강아지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소중히 하는 소품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위로 올려놓았어요. 자기 아이에게 향하는 'No'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아이는 천방지축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이의 이름 앞에 '노'라는 이름이 붙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저희는 애견인은 아니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가 자녀처럼 느낄테니까 강아지에게도 무언가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저 친구예요!

(상쾌해 보이는 손님과 함께 웰시코기 한 마리가 입장한다. 마침 문 앞에 있는 간식 바구니를 코로 한 번 톹 친다.)

간식을 주니 이 녀석이 이곳에 와서 활기를 찾고 이곳에 가자고 조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예요.

(강아지는 양전하게 앉아있다.)



같이 하는 것이다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부평은 복직이는 부평역 주변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이곳 부평구청 근처예요. 이곳에 많은 카페가 모여 있는데 직장으로 치면 직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생기면 어쨌든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마음이 바뀌어서 자주 찾아가고 본 지 오래 되면 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3월에 가게를 준비하며 새벽 1시에 퇴근할 때가 있었는데 무서워서 문을 못 열었어요. 동네 십 대들의 흡연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커피숍과 공방이 늘어나며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돈되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싸우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화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요. 저는 저희가 있는 부평구청 주변이 좋아요.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이 동네가. 하루 일을 성실히 마친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서점
루트

인터뷰
06

작고 귀엽고 촌스러운 아름다움

카페 5월 19일

설립연도 2018년 5월
대 표 김애영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92-41층
영업시간 12시~21시, 월요일 휴무
좌 석 수 11석
공간규모 10평
공간대여 불가
S N S [instagram.com/cafe_0519](https://www.instagram.com/cafe_0519)



“

존스롭고 새로운것의 조화로움

”

오래된 물건을 좋아한다. 짐작하지 못할 이야기를 품고 주변의 흐름과는 사뭇 달라 낯선 모습. 그것은 유일해 보이고 조금쯤은 외로워 보여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쉽게 풀 죽고 수줍은 소년 찰리 브라운과 거침없고 만족할 줄 아는 강아지 스누피도 사랑한다. 양 끝에 있는 것들은 서로 잘 어울리고 그들의 담백한 이야기는 언제나 안심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공간을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자신만의 미감을 가지고 존스롭고 새로운 것을 동시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잔뜩 둘러싸여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내는 주인. 스누피가 그려진 팬케이크와 토스트, 시바견이 그려진 당고, 심심한 팔우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 귀여움과 쓸데없는 아름다움이 곳곳에 널린 카페 5월 19일. 주인의 생일을 이렇게 간판으로 당당히 알려주고 있으니 한동안 생일 선물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부럽다.

마음에 드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

부평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인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 근처에서 가게를 찾아보다가 깔끔하고 말끔한 곳이 아닌, 캄캄한 호프집이었던 이곳이 탁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가 형성되어 북적이는 곳이 아닌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점착제로 붙인 나무 바닥과 시설이 완비된 호프집을 철거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철거 후의 인테리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직접 했어요. 에폭시 까는 것부터 조명, 칠하는 것까지 모두 저희가 손수 만든 공간입니다.

저는 처음 카페를 해봐요. 가구도 누군가에게 맡기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가구를 만날 때까지 품물시장에도 수없이 가고 주택가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오거나 누군가 사용하고 계신 것을 부탁드려 얻어오기도 했어요.

한 슈퍼 사장님께서 앉아계신 초록 의자가 마음에 무척 들어 저희에게 파시라고 했더니 이 낡은 것을 왜 좋아하냐며 거절하시다가 거듭 부탁드리니 그냥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부르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값을 드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가구였어요.





동네의 이야기가
담기는
편안한 곳

가게를 정식으로 열기 전에 앞에 한 아이가 매일 이곳을 들여다봤어요. 앞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참 예뻐요. 아이에게 인사를 해주니까 종종 와서 저에게 꼭 꼭 인사하고 엄마에게 이곳에 오자고 조르며 언젠가는 일부러 찾아와 선물도 주고 갔어요. 그런 동네의 이야기가 담기는 곳이라 이곳이 좋아요.

문을 열고 주로 찾아주시는 분들은 커피, 음료, 디저트를 소확행으로 즐기는 여성들이에요.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이곳에 와서 설렘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커피와 가족들도 많이 오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키즈 존으로 정해놓지 않아요. 오래 계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오래 있고 싶으실 만큼 이곳이 마음에 드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빨리 가시면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카페 이름을
정하기까지

남자친구는 저에게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감각을 존중하거든요. 제가 장난처럼 제 생일을 가게 이름으로 하자고 했을 때 단번에 좋다고 말해주어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생일을 이름으로 정한만큼 오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생일처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은 카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내기를 하세요.

작고 귀엽고
촌스러운 곳

빈티지 가게에서 2년 가까이 일했기 때문에 촌스럽지만 예쁘고 유일한 빈티지의 매력에 빠졌어요. 제 공간이 작고 귀엽고 촌스러움을 원했습니다. 인천에 하얏고 세련된 가게들은 이미 너무 많으니까요. 카페 준비하면서는 일부러 빈티지 소품들을 많이 모았어요. 꽃은 집에서 제가 직접 말려온 것들이랍니다.

공간에 움푹 들어간 곳에 무엇을 놓을까 고민하다 책과 콩나무처럼 기다란 식물을 놓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아주 오랫동안 키우던 식물인데 보기 드물게 길게 잘 자라서 마음에 들어요.

부평, 하면
떠오르는 것

‘똑같다.’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모두 비슷한 것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비슷해서 구별되지 않는 곳들이 많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길과 저 길이 구분이 안 가세요. 그래서 저는 부평구청 주변의 카페들을 모두 애정해요. 개성이 모두 달라서 여러 곳을 가도 질리지 않거든요. 가게를 열고 싶은 분들께 이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변화가에 만들게 되면 묻히기 쉽거든요. 큰 위험부담 없이 자기의 느낌을 살려서 시작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지하철역 근처라 너무 영뚱한 곳은 아닌 동네에서 자기 개성을 충분히 뽐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사셔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알아보고 발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한적한 곳이라 사람 들고나는 게 확실한 곳이지요. 새로 가게문을 열면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진다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볍고 젊은 공간이 잘 어울리는 지역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하면 내가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앞으로의 꿈은 근처에 빈티지 쇼룸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카페 말고도 새로운 소품 가게나 멋진 밥집을 만들 젊은 분들이 오셔서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점
루트

인터뷰
07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곳

사각공간

<u>설립연도</u>	2018년 4월
<u>대표</u>	김성열
<u>주소</u>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49번길 16, 1층
<u>영업시간</u>	평일 9시~22시, 일요일 20시~22시 연중무휴
<u>전화번호</u>	032.215.0423
<u>좌석수</u>	8+α석
<u>공간규모</u>	24.75㎡
<u>공간대여</u>	가능, 비용 협의
<u>프로그램</u>	심야책방의 날매일(마지막 금), 작가와 만남(격주)
<u>S N S</u>	nemo-book.tistory.com twitter.com/comm_unique instagram.com/nemo_book





“

보기 드문 책, 멋진 새 책,
깊이 있는 책.

”

북극서점에도 가끔 책덕후 분들이 입장하신다.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책 덕후들에게 서점은 놀이공원과 같은 강도의 설렘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책의 바다와 책의 계곡과 책의 정글을 탐험하려면 인제 그만 썩 나가라고 할 때까지도 있을 수 있다. 언젠가 추운 계절에 한 중후한 남성분께서 책을 고르셨는데 면면이 예사롭지 않은 책들만 골라 오셨다. 책덕후께서 오셨구나. 많이 고르신 걸 보니 즐겁게 놀다 가시는구나. 생각하니 기뻐다.

그분이 사각 공간의 사장님이다. 서가에는 그동안의 귀한 수집품들이 잔뜩 모여있어서 나도 실컷 5권을 골랐는데 4권은 귀한 절판본이라 진열만 해놓은 책들이라고 하셔서 시뭇묵했다. 하지만 내가 돈 많이 쓸까 봐 일부러 안 파시는 거라고 나 좋을 대로 생각하며 언젠간 갖고 말겠다고 다짐을 하며 나왔다.

보기 드문 책, 멋진 새 책, 깊이 있는 책들이 나란히 모두 멋진 서점. 사각공간이 생기며 부평구청 근처에도 책방이 3곳이 되었다. 얼마 전, 두 청년이 근처에 책방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 그러면 모두 4곳이 되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참 좋겠다. 그 이곳 주민은 바로 나. 개성 있는 책방이 이렇게 많은 동네라니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사각공간을 만든 마음

부평에 산 지 5년 되었습니다. 집이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근처에 대형 물류센터도 있거든요. 책방으로 운영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차하면 근처 물류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이곳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일하면 책방이 유지되겠지,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저는 책 자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싶어요.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믿고 이 책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닿게 되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신간, 애장품, 중고 책이 섞여 있는데 애장품은 공간이 남아서 갖다 놓은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는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것 중 내 눈에도 좋아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놓기도 해요. 특별히 가리지도 않고요.

밤늦게
사각공간을 찾는
사람들

악주를 한잔하시고 늦은 시간에 찾아주시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들어오시지 못하다가 취기를 빌어 들어오시고 책도 한 권 사 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직 서점의 문턱이 높구나. 사실은 정말로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재미있는 책들도 많은데 잘 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나 오락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요. 일단 들어오시기만 하면 접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사각공간은 중년분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가실 공간은 많으니까요. 저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점도 필요하고요. 무심코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내에게 선물할 책을 고를 수도 있는 서점.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

요즘에는 중심에 대한 열망에 지치고 공허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존의 활동들이 있고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 그런 면에서 부평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 같습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백업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점이 매력적입니다. 부평 자체가 오래된 도시면서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외진 느낌이 없이 평탄하지요. 고루, 두루 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영풍 입사할 때 제 공간을 이곳에서 해보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제 이름을 달고, 미쳤던 거죠.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영풍 문고 마케팅에 있다가 종로 서적 과장직을 맡고 나왔어요. 15년 정도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처음 책방을 열고 책을 거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일단 부딪히는 बात니까요. 자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슈퍼 울에서 그냥 울로 바뀐 것 같네요.

헤르만 헤세,
자연스러운 진리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와 싯다르타를 좋아합니다. 해소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망을 찾아 나서는 갈급함이 표현되어 역시 헤세 구나, 하며 보았어요. 입신양명의 서사지만 혼자 유리알을 가지고 유희를 하는 자기충족적인 부분, 그 과정에서 진리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지는 것도 좋았어요.

요즘 좋아하는 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사진 수필집은 밝고 환하기만 한데 이분은 이면을 봐주시고, 사진이 말을 거는 느낌이 묵직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호흡으로
산다는 것

서점을 열고,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피해 주지 않으려고 이익을 따지며 이것을 소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싶다르타의 구도자처럼 혼자 길을 떠나는 느낌. 그 여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이익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도 참 좋아요. 책방도 소매점이니 물론 이익이 필요하지만, 책이 지향하는 바가 그 바깥이니 서점도 그렇게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 서점에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답답했어요. 기업에서는 제 구실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니까 애를 쓰고, 무리하고, 나도 그 궤 안에서 같이 맴돌 수밖에 없지요. 내 서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망해도 나만 망하니까요. 사각공간에 그냥 마음껏 들어오세요. 서점은 그냥 서점일 뿐입니다. 편의점과 똑같아요. 들어와서 안 살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서점
루트

08

관람이 아닌, 만나는 자연

굴포천



“ 자연과 나의 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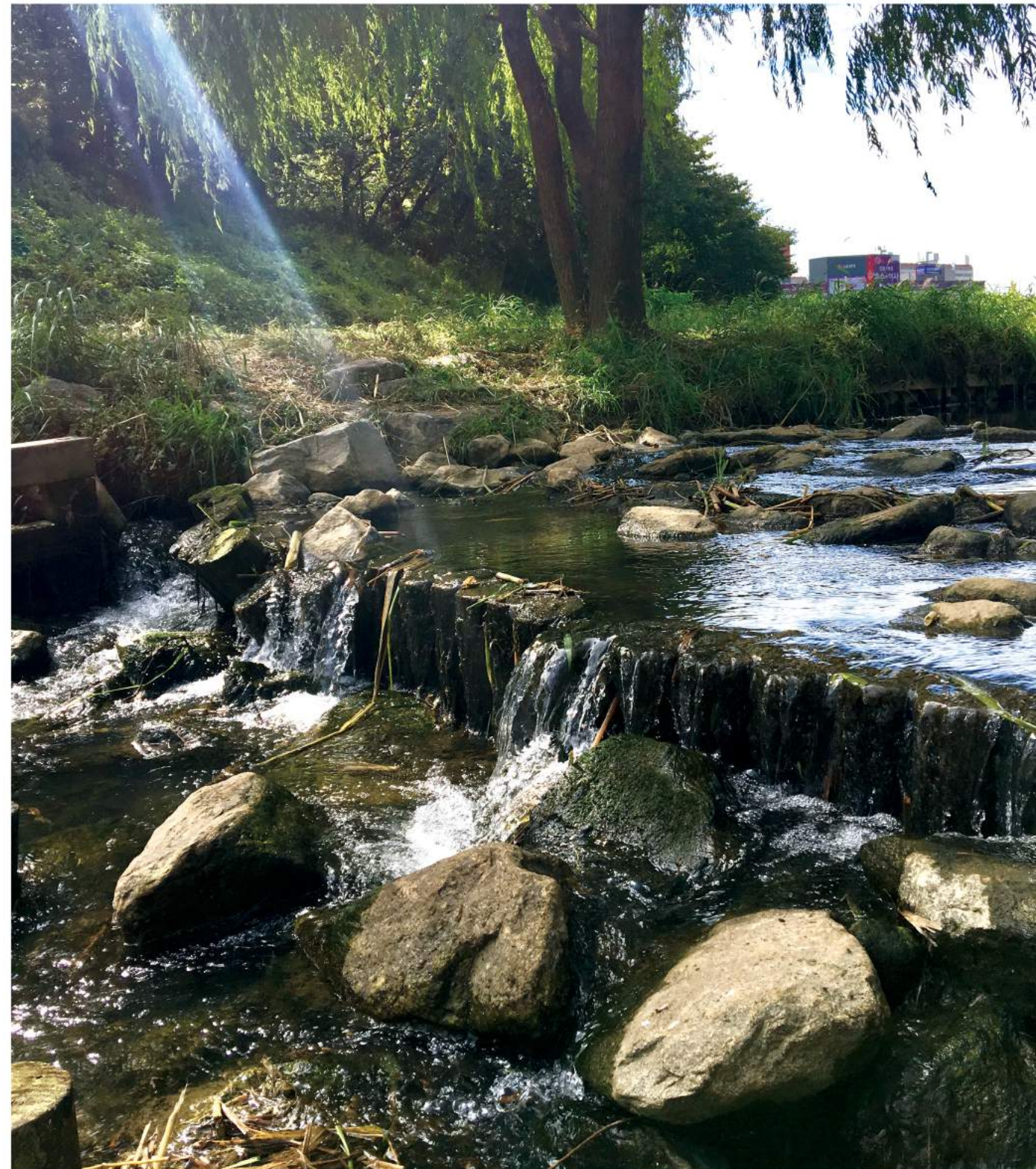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당연히 낯선 자연이다. 오로라와 흑등고래, 마운틴 고릴라를 자연 속에서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어떤 것은 이루어졌다.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면 같은 지구인데도 블랙홀을 통과해서 한없는 외부에 닿은 것만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잠깐 존재하는 것도 같다. 그렇다. 그곳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 같았다. 항렬한 와중에도 나는 줄곧 자연의 침입자이거나 약탈자였다는 쓸쓸한 진실이 뒷맛으로 남았다. 나와 마주한 먼 자연.

참새와 비둘기, 배추흰나비, 고양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들이야 늘 보는 것이라 아름답게 여기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고양이는 빼겠다. 고양이는 늘 말도 못 하게 사랑스러우니까. 근교 논두렁에서 보는 왜가리나 백로는 어떤 위치에 있나, 한적한 시골길 풀숲에서 푸드덕 날아오르는 꿩은? 그것은 제주의 깊은 숲에서 딱딱 나무를 때를 딱따구리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 그 아래 어디쯤 있겠지.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을 구분 짓고 귀함과 지루함을 가늠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도시 사람인 나의 수준일 것이다.

굴포천, 정말 있는 하천입니다.

서점 근처에는 '굴포천'이라는 곳이 있다. 심지어 한 정거장 뒤의 지하철역 이름도 굴포천이다. 그런데 이사 오고 한참 동안 그곳이 이미 사라져버린 옛 지명의 이름인 줄로 알았다. 이곳 부평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여름에 부평구청 앞의 조그만 길목 초입에서 '굴포천'이라는 낯익은 언뜻 보았다. 개천 정도가 지하로 흐르겠지,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곧 놀라운 풍경을 보았다. 졸졸 흐르는 꽤 넓은 하천이 펼쳐져 있고 눈앞에서 푸드덕 왜가리가 날아오르는 것이다. 세상에, 이것은 본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었다. 나는 왜가리를 만났다! 버드나무를 만났고, 산딸나무를 만났고, 청둥오리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색이 고운 새들도 만났다.

굴포천에서 내가 본 자연은 너무나 지척이어서 나는 그들을 이웃으로 대해야 했다. 왜가리 아저씨 같고 백로 아줌마 같았는데 바로 옆에는 도로와 상가로 가득해서 이들이 밤에는 어느 상가 창고에서 잔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굴포천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천이었다니! 맑은 시냇물은 아니었는데도 이 물속에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산다는 것이 아닌가. 하천을 따라 좁은 풀밭이 이어지고 계단을 오르니 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흩어 깔린 오솔길이 끝도 보이지 않게 이어졌다.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오랜 시간 물길을 따라 걸으며 기뻐했다.





눈앞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일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는 영종도에 있었다. 영종도라고 하니 그곳이 되게 섬마을 같지만 실은 높은 아파트들이 꼭꼭 들어찬 공항 근처의 깨끗한 도시였다. 학교 근처 공원에는 상수리나무들이 가득했는데 8살 우리 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을 자주 산책했다. 상수리 열매와 예쁜 잎을 잔뜩 주워 그림을 그리고, 토끼풀로 반지와 팔찌도 만들어 서로를 꾸며주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길이었는 데도 상수리 열매를 처음 주워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무 아래에서 얼음 땀도 하고 수건돌리기도 하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상수리에 대한 동시를 짓고 음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다. 상수리 잎과 나뭇결을 관찰하는 것은 그대로 과학 시간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상수리 하나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놀았다.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느라 바빴지만, 그해 가장 기분 좋은 수업이었다. 아직도 상수리를 보면 그때 아이들의 신선한 표정이 떠올라 무척 반갑다.

어린 시절을 지나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가보지 못한 멀리 있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의 더 깊은 아래가 궁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짜 궁금한 것은 내 눈앞의 것이었다. 달팽이가 내 손바닥 위를 기어갈 때 자국을 남기는 투명한 물질은 무엇이었을까? 겨우내 버려진 줄 알았던 화분에서 봄이 되니 나팔꽃이 자라났는데 이 씨앗은 누가 물었다 놓은 것일까? 우리는 눈앞의 일들을 궁금해한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사랑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미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다.

넓은 벌 동쪽 끝

도시의 생태는 그래서 중요하다. 굴포천을 산책하며 나는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있었다. 먼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동등한 자연.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새들이 나 때문에 놀라 날아가면 미안해지지만, 그들에게도 내 존재가 아주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태연한 몸짓에서 느낄 수 있다.

굴포천은 산속에 있는 듯 맑은 하천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씩 냄새도 나고 탁한 물길이다. 10분 걸었을 때 5종류가 넘는 동물을 만날 수 있는데 하천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사는 그 야생이웃들의 식생활이 조금 걱정될 정도이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하천 위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길을 더욱 살려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상상만 해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연을 향한 부채감이 조금쯤은 줄어든 기분이다. 아끼는 이웃들이 부디 넓어진 집에서 안락해지기를. 우리의 산책길에 초록이 흥성흥성 풍성해지기를. 가까운 미래에 이곳에서 태어난 누군가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며 실개천이 휘돌아 흐르는 고향을 갖게 되길. 도시 사람도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척의 자연이 우거지기를 빈다.

더 가볼만한 곳

더히든키친

르 코르동 블루 출신의 미국인 피터와 멋진 한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파스타 집. 면은 전날 숙성한 반죽으로 직접 뽑아 생면으로 먹을 수 있으며 얼마 전에 새로 개발된 양고기 뇨키를 먹으면 먼 곳으로 여행을 온 기분이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22번길 15-14
전화번호 032.272.7276
영업시간 평일 Brunch 10시~11시15분
금요일 10시~21시 / Break time 15시~17시

메 뉴 램 볼로네이즈 로즈마리 뇨끼, 알리 알리오, 라비올리
크리미 리조토, 하우스 와인, 미니버거 삼형제
편의시설 단체석, 예약, 무선 인터넷

스시키나바루

미스터 초밥왕을 가지고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의 초밥 집. 전채 요리, 초밥, 튀김, 우동, 디저트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코스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49번길 10-6
전화번호 032.361.2446
영업시간 12시~14시30분, Last Order 14시
18시~22시, Last Order 21시 / 연중무휴

메 뉴 스시키나코스, 사시미코스, 후토마끼,
계절별로 코스가 달라질 수 있음
S N S blog.naver.com/kina62604
편의시설 주차, 포장, 예약, 남 녀 화장실 구분

물레꽃

우아하고 귀여운 화분들이 놓인 식물 집, 따스한 공간에서 듣는 플라워 클래스도 운영 중. 사장님의 안목에 선별된 멋진 식물들이 웅기충기 모여 있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의 라인업도 훌륭하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 13
전화번호 0507.1314.0140
영업시간 평일 10시~20시, 토요일 10시~20시
일요일 예약가능

S N S instagram.com/moolleflower
편의시설 단체석, 배달, 방문접수 출장, 예약, 무선 인터넷
애완동물 동반

더십일

카페 한쪽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에서 독일 무성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커피, 와인, 맥주와 함께 맛있는 안주를 곁들일 수 있는 곳.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49번길 20
전화번호 0507-1312-8197
영업시간 연중무휴, 영업 11시~23시

메 뉴 맥앤치즈, 멜란자네, 감바스, 에그인헬, 튀김버무리,
맥주, 와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S N S instagram.com/the11.official
편의시설 무선 인터넷, 애완동물 동반

실리제롬 베이커리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 빵이 너무 좋아 등딱지 대신 빵을 달고 다니며 뜯어 먹는 어리석은 거북이 제롬의 이야기는 사장님이 직접 지어내셨다. 실리제롬의 문고리가 바로 그 거북이.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전화번호 0507.1402.6505
영업시간 월요일 휴무, 영업 11시~21시

메 뉴 양버터, 버터프레첼, 치아바타, 스콘, 모찌모찌식빵 등
편의시설 주차



김용호의 산책

공방루트

소회 상회 우주방앗간 가구공방 호작담

메이스테이크 작은가게 묘연 부평시장 세라믹스튜디오 길

+ 더 가볼만한 곳

별의 무력이 조금은 사그라든 청량의 계절, 정오를 앞둔 시간.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
문득 떠오른 어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
“시간만큼 성실한 게 없지. 암.”

이따금 찾아오는 고개 가우뚱 기울어지는 순간. 이를테면, ‘지금 걷는 길이 과연
옳은 곳 향하는 발걸음인지’같은. 그럴 땐 시간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물론 즉문즉답 이루어질 리 만무하지만, 시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답을 건넨다.
그것이 정답 아닌 해답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낮은 건물의 배열. 익숙한 것들이 허무는 경계심. 걸음의 속도와 보폭 줄어드는
순간. 오래된 구시가지 거리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느 아버지의 추운 겨울
아침, 시야 흐리는 시린 콧김에도 재촉하던 동동거리는 발걸음이 녹아 있고, 어느
어머니의 여름날, 무더위보다 물리칠 것 많아 이마부터 흐르는 땀 한줄기 제대로
날리지 못한 어설픈 손부채질이 흠뻑려져 있다. 어느 젊은이가 들이마신 아침의
맑은 이슬과 내뱉은 고단한 한숨들이 길가 한 편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이며, 어느
아이의 처음. 혹은 그에 가까운 열은 달음질이 짙은 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균일한 시간의 흐름은 거리와 맞닿아 대체로 성실이나 정직이라는 말로
수식될 수 있다. 비밀 이야기 하나 하자면. 사실, 세상 모든 일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모두에게 공평하기로 소문난 그들이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틈 같은 것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성실한
걸음을 옮길 것이다. 걸음 사이 어떤 것을 놓쳤다면 주변 돌아보며 이내 되찾을
것이고, 그렇게 쌓아 올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성실한 거리.

사람은 대개 앞으로 걷는다. 장기자랑 시간에 게 흉내를 낸다며 옆으로 걷거나,
이른 아침 운동 삼아 뒤로 공터를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걷는 일은
물리적으로 공간의 이동. 동시에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내딛는
걸음마다 1초, 1분만큼의 미래가 되고, 지나온 발자국마다 과거가 된다.
당연하게 앞으로 걷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지난날의 보폭만큼 균일하게 자국이
남아 기억 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흡사 무언가의 연대기. 걷는
일은 일상에서 쉼 없이 반복되는. 당연하고 별 것 아니라 여길 수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거대한 연대기라고 칭할 수 있다.
내가 걷는 이 길.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시간 속 발자국을 떠올리면 어느 순간
나는 시간 반대편의 산책자가 된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속 어떤 대목처럼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일까.
‘날음’으로 치부되는 이 거리에 가득한 성실한 시간이 그러한 것처럼.

큰 대로변 사이로 난 골목길에 접어들자 펼쳐지는 오래된 주택가. 이따금 새로
짓는 건물도 있지만, 자그맣게 쌓아 올리는 철과 흙은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한다. 이곳을 둘러싼 많은 것들 역시 오래전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테니. 그저 시간이 조금 지나 빛바랜 겉모습이나 이제는 어엿할 언젠가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흔적이 남아 있을 뿐.

갈라진 어느 벽의 틈 사이로 여린 줄기 하나가 뻗어 나와 끝자락엔 꽃망울이 맺혔다.
이런 틈에서도 자라는구나. 대견했다. 어린 꽃망울 첫걸음 떼는 것이겠지만, 우연
하게도 이 거리와 썩 결이 맞아떨어진다. 옆집의 너와 뒷집의 그와 저 집의 나도
그렇게 자라났으니 이질감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길가에 놓인 낡은 의자는 어느
노인의 쉼터로 제 몫을 하고 있었다. 길모퉁이에 놓인 동물 사료와 물이 담긴
그릇, 비바람 피할 수 있게 놓인 스티로폼 상자까지도. 그렇게 무심한 듯 이내
모두가 어우러진 골목길에는 몽근한 다정함이 스며있다.

모퉁이 돌아 마주한 저층 아파트 외벽에 새겨진 아파트 이름은 ‘비둘기’였다. 마치
거대한 붓을 들고 숨 참으며 한 획, 한 획. 빼침이라도 생기는 날엔 고함 소리 내며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기술자의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하는 글자의 생김이었다.
대학에서 배운 수업 중엔 ‘타이포그래피’라는 과목이 있었다. 쉽게 말해 글자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글자의 미적 활용. 보다 읽기 좋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학부 시절엔 늘 외국의 사례를 찾느라 바빴는데, 이 거리에서
다시 마주한 글자가 지난날의 노고를 상쇄시켜준다. 하나의 글자를 보고 머릿속
에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수년, 수십 년 전. 누군가 그렇게 정성껏 칠한 것을 보고 요즘을 사는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글자를 사진에 담으며 뿌듯해
하고 있으니 나쁠 것 하나 없는 일.

별의 무력이 조금은 사그라든 청량의 계절, 정오가 막 지난 시간.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
문득 떠오른 어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
“시간만큼 성실한 게 없지. 암.”

비밀기



공방
루트

인터뷰
01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

소회 상회

설립연도 2018년 4월
대 표 이호빈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74번지
아주종합상가 1층 1호
영업시간 10시~20시
작 석 수 8석
공간규모 5평
공간대여 불가
프로그램 독립출판물 제작 스터디, 한국사 스터디,
글쓰기 모임
S N S [instagram.com/sohoi_official](https://www.instagram.com/sohoi_official)
이 메 일 sohoi2018@naver.com



“ 마음 속 회포를 풀다 ”

‘소회’는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풀다는 뜻으로 우리들 역시 각자 마음속에 품었던 일을 이뤄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이곳 역시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으로 누구의 강요도 없다. 자칫 생각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콘텐츠나 창작물로 나올 수 있게끔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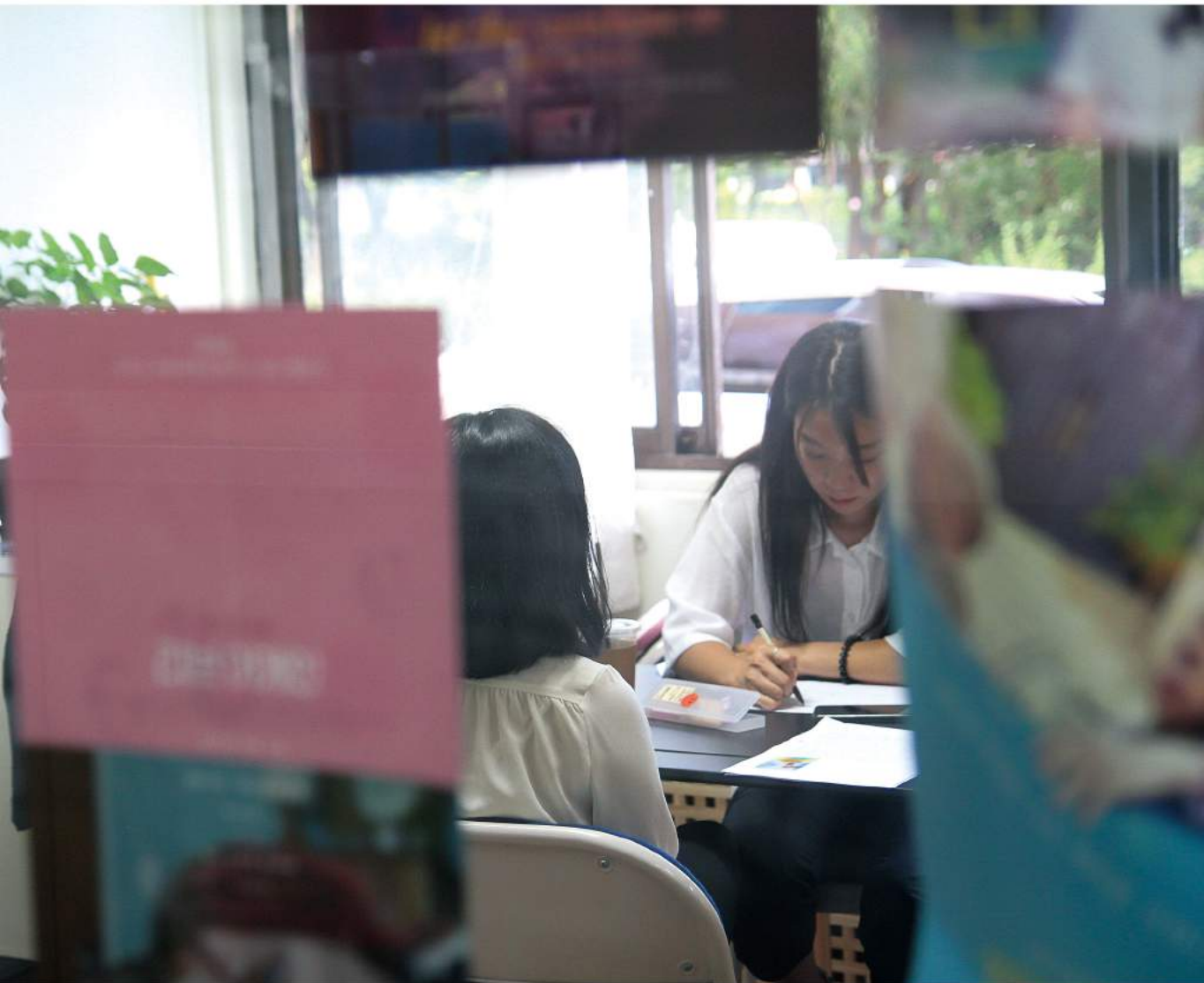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소회 상회는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있는데, 부평은 지리적으로 모두 모이기 좋은 위치였어요. 공간을 찾던 지난봄 무렵, 우연히 지나간 굴포공원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됐죠. 굴포공원뿐 아니라 부평엔 걷기 좋은 공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인근 동네 서점과 카페 등 문화적으로도 조화가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공간은 대학교 동아리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전 학생도 아니다 보니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공간이 많지 않아 아쉬웠거든요. 무언가 명확한 컨셉을 잡기보다는, 우리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각자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해보자는 이야기로 시작되었기에 외려 그것이 명확한 컨셉이 되었어요. 부평에 공간을 꾸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지난봄, 신트리공원에서 열린 휘파람 마켓에서도 실제로 인근의 많은 분이 찾아주셨거든요. 이 동네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꾸렸다는 사실에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감사하게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인상 깊어요.

자연과 닿아있는, 작은 것으로 가득 찬 동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부평의 이미지는 유흥가였죠. 부평을 거대함을 뽐내던 곳으로 인식하고 지낸 게 꽤 오래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평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부평 곳곳에서 작고 반짝이는 가게들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곳들은 각기 다른 개성으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요. 알수록 재미 좋은 동네예요. 부평을 안지 오래되어 친숙했던 탓에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도 대수롭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선선



한 거리에서 바라본 이 곳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소한 재미가 많고, 특히 좋은 공원이 많아 걷는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엄청 오래된 건물에 있어도 조금만 나서면 부평은 어디보다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얻는 영감이 분명히 있어요. 주고 받을 게 많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동네라서 이곳이 더욱 좋아져요.



공간과 함께 기억에 남는 소박한 순간

공간을 만든 후 작은 오픈 파티를 했어요. 아는 사람들 도란도란 모여 맛있는 것 먹고, 사진도 찍었죠. 대단하지 않지만, 소박한.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 소회와 가장 닮은 모습이랄라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해요. 우리처럼 무언가 하고 싶지만, 쉬이 용기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공간. 그렇게 즐거운 에너지로 채워진 이 공간은 우리가 만든 책과 잡화, 상품 등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소회 상회에서 최대한 시도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그러나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가고 싶어요. 이 공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바람이 있어요. 혼자였으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공방
루트

02

일러스트레이터의 화실 우주방앗간

설립연도 2018년 1월
대표 이윤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7-17, 1층
영업요일 화·수·목·일요일
좌석수 10석
공간대여 가능
프로그램 연필데생, 인물화, 수채화, 여행스케치, 아크릴화 등 정규클래스
S N S [instagram.com/w0000j0000392](https://www.instagram.com/w0000j0000392)
이메일 yunmi30332@naver.com



“
등대의
마음
”

늦은 밤거리에는 어두운 이불 내려앉아 모든 빛과 소리가 잤아든다. 차 다니는 길엔 택시만이 쌍쌍 불 밝혀 경계선을 그어주고, 이어지는 주택과 상점은 하루의 아쉬움을 끌어안고 내일을 위해 일제히 눈 감는다. 지나가는 이에게 밤은 까마득히 어둡다. 밤하늘의 달은 다정하지만, 세상 모두를 미처 돌보지 못한다.

달마저 자취를 감췄던 어느 밤의 길을 기억한다. 별다를 것 없던 늦은 밤, 움직임이 잦아든 거리. 등대의 노란 불빛이 길을 밝힌다.

‘우주 방앗간 화실, 취미 미술 회원 모집’

화실이지만, 이곳은 등대. 사람 없는 화실에 불을 밝혀놓은 이유 역시 등대의 마음과 같았다.

“밤에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요. 불빛 하나라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될 것 같은

실내에는 노랑과 하양의 전구가 번갈아 불을 밝힌다. 따뜻한 차나 시원한 물을 들이켠 듯 몸과 눈이 모두 안락하다. 차분하게 정리된 공간, 고요한 활기. 세상 모두를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이 스쳐지나간다. 본디 그리는 일에 절대적 기준이 있을 리 없지만, 내 그림이 예쁘지 않을 땐 내가 나를 조금 더 예뻐해주는 편이 좋다. 신기하게도 그림이 마음에 쏙 들어올 테니. 어느 수강생이 그어놓은 선을 보니 숨이 흐트러진 듯 잠시 비뚤어졌으나, 이내 본 궤도를 되찾아 고운 선을 그려냈다.



함께 그리는 일

우주방앗간은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실로 쓰이는 화실이다.

“혼자 그림 그리는 건 심심했어요. 같이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함께 그리기 위해 작가는 화실을 꾸리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에 살았지만, 부평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공간을 꾸린 가장 큰 이유는 부평에 살았던 친한 친구 때문이다. 서로 가까운 곳에 화실을 열어 함께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 가장 빛나는 것은 사소함에서 나오는 법이다. 사소함은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벌이곤 한다. 화실에 앉아 창밖을 보니, 다시 등대의 마음이 떠올랐다.

유리창 앞으로 펼쳐진 너른 잔디밭은 바람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일렁이는 파도와 같고, 그 앞으로 이어지는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것들은 매끄럽게 파도 타는 배나 요트같이 보이기도 했다. 맑거나 흐리거나, 무언가 내리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림 그리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낮이나 밤이나 푸른 바다 바라보는 등대의 마음. 반드시 푸르지 않더라도, 여전한 마음으로.

공방
루트

03

좋은 이야기를 짓는 곳

가구공방 호작담

설립연도 2018년 3월
대 표 김용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68-12 지하 1층
영업시간 월~금요일 13시~22시
토요일 10시~16시
좌 석 수 20석
공간대여 가능, 비용협의
프로그램 정규 기초·중급반, 워크숍
테이블 위 짓는 시간 등
홈페이지 hojakdam.com
S N S blog.naver.com/holiday0315
[instagram.com/hojakdam](https://www.instagram.com/hojakdam)
이 메 일 hojakdam@gmail.com



“

가구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짓습니다.

”

이름은 '호작담'으로 지었다. 종을 호(好), 지을 작(作), 이야기 담(談). 좋은 이야기를 짓는 곳. 나무로 정체성을 규정짓고 싶지 않았다. 글과 그림, 사진. 그리고 나무. 이곳에서 지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부평의 어느 큰 공원 끝자락, 처음부터 좁은 틈만을 허락한 듯 늘어선 주택들의 어느 사이. 힘겹게 깃발 꽃을 정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 없는 지하 1층. 짙은 입간판과 열은 유리문에 달라붙은 글자만이 가구 만드는 공방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곳에 오기 전, 수도 없는 갈래의 골목길을 오가며 내가 자리 잡을 공간이 있긴 할까 걱정했다. 늘 그렇듯 해답은 내가 헤매던 갈래 속에 있었다.



오래된 동네에 어린 공방을 꾸리는 일

돈의 부재는 선택지를 단순케 했다. 빠짐없이 직접 꾸렸다. 하나의 공간을 세 개로 나누는 가벽을 세우고, 잊지 않고 문에 창을 내어 달았다. 페인트칠하며 누더기 된 옷이 네 벌쯤 된다. 바닥 시공은 처음이라 냄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 지독한 냄새를 쫓아 내려온 வீ집 어른신께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공간을 수리하면서 짜장면, 탕수육과 무한리필 고깃집은 어느새 필수 코스가 되어 있었다. 창문 한 뼘 없는 지하의 환기를 위해 환풍기를 다는 일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이었다. 전기 아저씨를 도와 천장에 구멍 뚫다가 불꽃 튀며 정전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내부에 들어갈 작업대와 테이블, 수납장과 선반은 최대한 대충 후드득 만들어내었다. 그런데도 예쁘게 느껴지는 건 적잖이 놀랍다. 50리터 쓰레기통과 막 쓰기 좋은 스톨 의자는 파랑고 노란 커다란 창고 같은 곳에서 사 왔다. 두 달쯤 시간이 지나 공방을 열 수 있었다.

주문제작을 받았고, 원데이 클래스와 몇 주 과정의 워크숍을 기획했다. 가구 제작의 기초를 가르치는 정규반도 더불어 열었다. 수강생이 하나둘 늘어 그들의 도마, 스펀과 나이프, 스톨과 협탁을 만드는 모습 볼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내게 와서 목공을 배울까 의아했다. 내 덕인지, 공간 덕인지 알지 못한 채 수업은 진행됐다.



저마다 쌓아온 것들.
이를테면 낮은 높이의

어느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

“저는 애초에 낮은 사람이라서요.”

높은 곳에서 지휘하는 일보다는 밑에서 돕는 일을 잘한다.

그리고 어느 수강생은 말했다.

“선생님은 느린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설명을 잘하시나 봐요.”

이곳이 좋은 이야기를 짓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테이블 위, 짓는 시간>이라는 모임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창작활동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이뤄가는 시간.

공방을 꾸리며 이것저것 채워도 부족한 것 끝없다고 느끼던 무렵,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차피 마지막으로 공간을 채우는 건 사람이야.”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무언가 짓고 나눈다. 인천에 살지만, 통근하는 서울에서 여가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 좋다고 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된 것이다. 이곳에 공간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 보인다.

호두나무로 그릇장을 만든 일이 있다. 미리 만든 샘플이 하나, 주문 의뢰받은 것이 하나. 나무와 디자인, 제작 과정이 모두 같은 두 그릇장은 결과 색이 다르며 향도 미묘하게 달랐다. 그렇다고 이 둘을 다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가구 만드는 나무 중엔 체리 나무도 있다. 80~90년대 가정집에 도배된 물딩 인테리어로 촌스럽다는 오해를 종종 받는 나무. 그러나 실제로 체리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붉은빛이 짙어지며 세월에 비례하여 아름다움 뽐낸다.

나무와 사람, 공간은 모두 닮아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저마다 쌓아온 시간이 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고,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오래된 이 동네가 가진 색과 결, 향은 생각보다 짙을 지다. 어린 공방이 쌓아갈 이야기 역시 깊다. 어느 주택가의 귀퉁이, 짙은 시간의 향 배어 있는 동네에서 쌓여가는 나무로 짓는 이야기.





공방
루트

인터뷰
04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것

메이스테이크

설립연도 2017년 6월
대 표 김미림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90번길 21-14
영업시간 11~10시 / break time 3시30분~5시
수요일 휴무
전화번호 032.525.8899
좌 석 수 약 40석
공간대여 가능, 비용협의
주요메뉴 뼈에야, 스테이크, 상그리아
홈페이지 0325258899.tshome.co.kr
S N S facebook.com/maysteakk
instagram.com/maysteak5



“

오래된 주택가에서 느끼는
활기찬 맛

”

메이스테이크의 젊은 두 자매는 할머니가 살던 옛날 주택을 새롭게 꾸며 낯선 스페인 음식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꿨다. 어린 시절 유쾌한 여름방학을 보냈던 할머니 집에서 이제는 손님을 돌리고, 멋진 음식을 만든다.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많은 사람을 위한 편안한 곳으로 나누고 싶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꾸몄다.



스페인의
화려한 열정을
일상에 수놓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열정적인 색감으로 오래된 주택가를 활기찬 골목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저희는 심플한 것보다는 화려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온종일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늘 비슷한 모습이면 우리 스스로가 지루하게 느껴요. 계절이 바뀌면 자연도 옷을 갈아입듯, 메이스테이크도 새로이 단장해요. 계절이나 기분, 날씨에 따라 최소한 음식의 컨셉은 늘 달라져요. 우리의 분위기 탓일 수 있지만, 활기찬 손님이 많아요. 처음 오시는 분, 소개받고 오시는 분, 우연히 들어오는 분 가릴 것 없이 활기찬 느낌이에요. 동네에 오래 거주한 분이 많지만, 특히 최근 젊은 부부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공간의 힘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단골손님은 우리와 같수록 닮아져 거리감이 없게 느껴져요. 단골손님 중엔 1주일에 2번 정도 오시는 손님이 있거든요. 오픈할 때부터 봤던 아이가 1년 새에 굉장히 빠르게 크더라고요.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어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간에 경험했던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쉬웠던 것이 하나도 없었죠. 요리를 손님에게 내드리는 동안에도 필요한 재료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계속 생기지만 손님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하니, 새벽에 남아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공간을 채워왔으니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가게 앞 전봇대도 직접 색을 입혔거든요. 지금은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오픈 준비를 도와준다면 함께 칠해줬어요.



자매가
함께 만드는
음식과 문화

말 안 해도 마음이 잘 맞으니 몸은 조금 힘들어도 일을 확실하게 하게 되요. 편안한 자매사이라서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맞춰가는 점이 있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많아요. 누굴 가르치고 시키기보다는 겪어 나아가며 얻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유행을 좇지 않고, 우리만의, 우리 동네만의 문화를 쌓고 싶어요.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가운데 정보가 공유되고 외로움이 채워지기 바라요.



공방
루트

인터뷰
05

갑작스러운 만남처럼 더욱 반가운

작은가게 묘연

설립연도 2017년 7월

대 표 장선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75번길 23번지

영업시간 14시~20시, 휴무일 별도 공지

좌 석 수 3석

공간규모 약 12평

공간대여 불가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홈페이지 sunhyecompany.co.kr

S N S instagram.com/myoinyeon



“

우연히 만난 고양이 잡화점

”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랑스러운 공간에 있다. 물론 그곳에서는 고양이만 만날 수 있다. 주인처럼 앉아 있는 고양이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발목을 잡아끄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모아 파는 잡화점,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갑작스러운 만남처럼 더욱 반갑다.



묘연이 자리 잡은 이곳

부평 문화의 거리와 지하상가를 떠올리면 부평이 유행에 따라 휩쓸리는 흔한 동네 같지만, 사실 곳곳에 숨어있는 가게들의 느낌이 대단히 좋아요.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탓에 새로운 것의 유입이 느리지만, 각자의 속도로 변화가는 것이니 이러한 정도로 좋죠. 구시가지에 잡은 묘연 주변은 오래된 동네예요. 하지만 근래에는 새롭게 부평에 자리 잡은 젊은 분들이 늘어나 무거운 분위기가 상쇄되어가고 있고, 그들의 새로운 시도가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양이는 어르신보다 젊은 분들의 관심을 더 받기 마련인데, 이 공간을 통해 동네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해요.





고양이와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

묘연을 꾸리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세입자인 터라 모든 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공간이므로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유리 관련 제품은 한쪽에 모아놓고, 물은 곳곳에 배치해줬어요. 출입문 외에 중문도 달아 뒀어요. 손님들은 불편하겠지만, 이곳은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창문 두드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가게 앞에도 주차하지 않기. 모두 고양이가 놀라거나 싫어하는 일이에요. 고양이는 스트레스 받거나 아파도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더 마음이 쓰이지요.



어느 날, 손님이 키우는 고양이를 그려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 받아든 손님이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벌써 무지개다리 건넌 고양이였어요. 영영 우는 손님을 달래 드리다가 함께 울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묘연을 채워나가고 있네요. 작지만 갖게, 고양이와 유대를 경험하며 사람과 교류하고, 사람들의 고양이에 관한 인식을 좋게 만들고 싶어요. 묘연에서는 작가로부터 입고한 물건을 홍보해 판매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시면서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상상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젊은 층을 지지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공간이 다르게 변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공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공방
루트

06

모든 표정을 담은 곳

부평시장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38-3(부평종합시장)

점 포 수 447개

공간규모 11,655㎡



“

한결 가벼운 발걸음,
비로소 느껴지는 생동감

”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더뎠음.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가만히 서 있을 때 느껴지는 시냇바늘조차 움직이기를 포기했다는 직감. 어느 날, 예고 없이 한 줄기 바람이 스친다. 시냇바늘은 침 없이 흐르고 있었구나. 한결 가벼운 발걸음, 비로소 느껴지는 생동감.

부평의 다양한 얼굴

1995년, 우리 가족은 인천에 동지를 틀었고 나는 안락하게 자랐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시험이나 학기가 끝나면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아도 부평으로 모여들었다. 넓디넓은 부평 지하상가는 옷이나 치장거리로 가득한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밖으로 나오면 깎뚝 떡볶이 포장마차를 자주 마주쳐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했다. 그것이 부평의 전부인 줄 알았다.

부평역에서 15분정도 걸어가면 마주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다. 활기찬 삶의 일터에서 묻어나는 고단함 같은 것. 손님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스스로 물건을 자신 있게 권하는 능름함, 밤이나 낮이나 언제까지고 그 물건들을 돌보는 다정함.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쉬이 상상되지 않는 굳건함 같은 것들. 이 모든 표정을 담은 곳. 부평시장.

부평시장의 처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1950년대 해방과 한국전쟁 즈음, 일본이 지은 조병창 자리에 들어선 미군 부대. 그곳의 물자를 파는 양키 골목 등이 생기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부평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곳곳에 시장이 생겨났고, 2000년대에는 20곳이 넘는 시장이 생겨났다. 부평 종합시장을 비롯해 부평 자유시장, 진흥 종합시장, 부평 지하상가 등 모두 별개의 시장이지만, 서로 얹히고설켜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개미굴처럼 이어지고 갈라진 시장 골목. 어느 만듦집 앞에는 포슬한 김이 자욱했다. 이내 사라질 김이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을 노고와 정성은 결코 사라질 줄 모른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고기만두 1인분 포장해주세요.”

얇은 종이에 돌돌 말아 포장한 만두. 이런 오래된 포장 방식은 생경했고, 동시에 반가웠다. 만두집은 자리를 지킨 지 사십 년이 넘었다고 했다. 무爲의 존재가 유爲의 존재로 바뀌고, 네발의 짐승이 두 발의 인간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러한 순간의 연속을 이곳에서 보낸 만두집 사장님의 시간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의 지난 계절들을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

시장길 따라 이어진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에는 기대에 찬 마음, 가득한 행복, 바쁜 끼니, 고단한 귀가 모습이 담겨 있다. 오늘도 마을 줄 모르는 발자국 위에 새 발자국 더해지며 삶의 이야기가 쌓여 간다.





공방
루트

07

노랑거나 파란 가마의 온기

세라믹 스튜디오 길

설립연도 2018년 7월
대 표 길소영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209 1층
영업시간 11시~20시, 월요일 일요일 휴무
좌 석 수 최대 4석
공간대여 가능, 비용 협의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정규반
S N S blog.naver.com/ceramicstudiogill
[instagram.com/gillamic](https://www.instagram.com/gillamic)



“

나란하게 서 있는 낮은 건물들의 모양새가
팬스레 앙증맞다.

”

나란하게 서 있는 낮은 건물들의 모양새가 팬스레 앙증맞다. 언젠가 차례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불쑥 떠오른다. 빗바랜 건물 외벽은 낡음보다는 차분히 자리 지켜온 맑음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동네를 한 걸음, 두 걸음.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버스 정류장. 어린아이는 엄마 손 잡고 어딜 가려는지 멀뚱히 버스를 기다린다. 엄마는 저 멀리 고개 넘어 버스가 나타날 곳을 응시한다. 버스의 정수리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걸까. 어쩌면 그녀의 시선 뜨거워 버스는 정거장 들어오는 것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나의 태양 빛 산란하여 각기 다른 빛내듯, 저기 저 아이의 시선도 온갖 곳으로 퍼져 세상의 것들 새로운 빛으로 탄생시킨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이 이내 지긋이 멈춰 섰다. 여전히 버스는 올 줄 몰라 엄마는 아이의 눈망울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 딸의 탄성이 허락하는 만큼 주욱 잡아당겨 눈망울의 종착점 따라 걸음 옮긴다. 파란 외벽이 마음에 드는가 싶었는데, 유리창 너머 도자기로 만든 고운 그릇에 아이의 눈망울 넘실거리게 담겨있었다. 누가 떠 놓은 고운 눈망울인지. 지나가던 행인도 궁금해 속도 늦춰 도자기 그릇 구경한다. 잠시 후 하나의 눈망울을 몇 개의 그릇과 컵이 나눠 가졌다.

도자기는 저 아이 눈망울로 빚었나. 맑으며 정성스럽고, 보는 것만으로 온기가 전해진다. 도자기 굽는 가마를 켜 놓은 게 이유인지 알 길 없지만.

흙 속에 담을 것들

‘세라믹 스튜디오 길’이 오픈한 건 지난 4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작업실 한쪽 벽은 도자기로 가득하다. 오밀조밀한 손길 닿은 도자기 접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수강생의 작품이라고 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입니다.”

피카소는 이곳 어린 수강생들의 작품을 미리 본 것일까. 그는 화가이며 동시에 시간 여행자였던 걸까. 정답 찾는 것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정답 없는 예술을 경험하는 아이들. 아동반으로 한정 짓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고등반, 성인반을 두루 운영하며 바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흙을 통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도자기로 표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





'낯음'으로 매듭지을 수 없는 곳

"조금 낯은 동네인 건 맞아요. 그런데도 좋은 곳이에요. 편안해요."

공방 운영하는 작가는 부개동에서 나고 자라 이곳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밤, 가마는 혼자 빈 공방을 지키며 몇 개의 그릇을 구워냈다. 공방의 성실한 일꾼. 새것의 느낌 짙은 공방이지만, 동네와 하나처럼 어우러지는 이유는 그런 성실함으로 가득 찬 덕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것이 생기고 사라졌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모두 분명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그것이 한두 차례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낱말로 꾸며지고 있다. 이를테면 주말이면 활기 띠는 거리의 플리마켓 같은 것.



"예전엔 그저 옷이나 먹을 것만 가득하던 거리가 요즘은 다양한 창작물로 가득해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좋아졌고요."

대단하지 않은 자그마한 시작 일지라도, 나고 자란 동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지켜보는 것과 함께 사람도 성장하는 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기특한 일.

노랑거나 파란 벽의 공간, 그 속에서 도자기 구워지는 시간이 주어진다.

빠르지 않아도 차근차근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더 가볼만한 곳

참새초밥

신트리공원 앞에 있는 아담한 초밥집으로 산책과 결들인 가벼운 점심식사 장소로 좋다. 참새 런치 세트같은 메뉴 선택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초밥을 맛볼 수 있고 광어회, 연어회, 활전복 같은 신선한 회와 돌이 준비되어 있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36, 1층

전화번호 032.545.2580

영업시간 11시~ 2시 / break time 15시~17시, 연중무휴

홈페이지 chamsaesushi.7x7.kr

S N S instagram.com/chamsaesushi

그림나래

한국화가가 운영하는 동양화실에서 특색 있는 우리나라 전통 채색화를 배워볼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용된 분채 같은 다양한 전통 안료를 사용하고, 전통 기법으로 민화부터 채색화까지 그려볼 수 있다. 예쁘게 꾸며진 화실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정규클래스와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된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8 1층

전화번호 010.8888.5791

영업시간 개별 문의

홈페이지 grimnarae.co.kr

S N S instagram.com/grim.narae

허들링 도자기 공방

항제팽귤이 혹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무리 전체가 달팽이 처럼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의 위치를 계속 바꿔나가는 허들링처럼 멸종위기 동물을 따뜻하게 품어주고자 주로 동물과 식물을 모티브로 도자기 장식품을 제작한다. 세라믹 스튜디오로 정규클래스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전반적인 기법인 흙판, 핀칭, 코일링, 물레, 석고 등을 배울 수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8-2 1층

전화번호 010.7334.7874

영업시간 10시~21시, 일요일 휴무

홈페이지 huddling.kr | smartstore.naver.com/huddling

S N S instagram.com/popomang



김동균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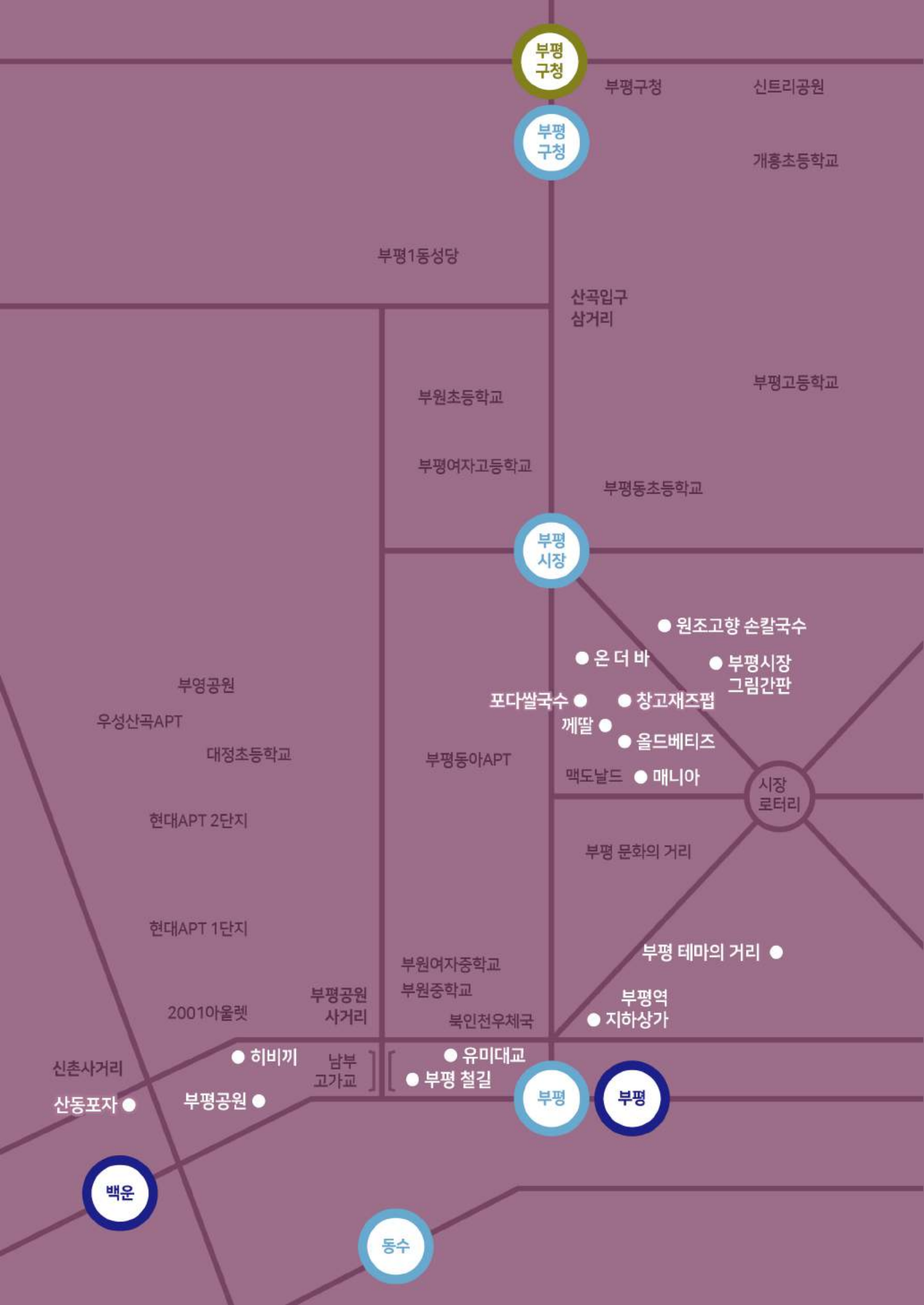
차밍루트

산동포자 부평공원 히비끼 부평 철길 유미대교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 테마의 거리 매니아 올드벤티즈 깨달 창고재즈펍

포다쌀국수 온 더 바 부평시장 그림간판 원조고향 손칼국수

+ 더 가볼만한 곳



산책을 시작한다.
수도 없이 걸었던 길.
십여 년 전부터 흘러온 기억과 시간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새로운 활용법이 무엇인지,
어떤 시간과 경험 속에 머물지....
이런 의문에 답하려면 일단 걸어야 한다.
때로는 목적지를 정하고, 때로는 두서없이,
계속해서 걷고, 보고, 느껴야 한다.

부평.
가까운 듯 먼 듯 설 새 없이 움트는 그곳과 함께
나도 나이를 먹었다.
이제 그곳을 다시 만나보려 한다.
신발 끈을 세심히 조여 매고,
편한 바지와 낙낙한 셔츠를 입고,
산책을 나선다.





차밍
루트

01

만두를 팔지 않는 만둣가게

산동포자

설립연도 2000년도 초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75 대경빌딩 1층
 영업시간 오후 6시~12시, 연중무휴
 전화번호 032.431.8885
 좌 석 수 테이블 실내 4개, 실외 3개
 공간규모 약 9평 (29.7㎡)



“
마음이
헛헛할 때,
”

마음이 헛헛할 때, 터벅터벅 찾아가 요리 한 접시 시켜놓고 독한 고량주 한잔을 곁들이고 싶은 곳. 중국요리와 영 어울리지 않을 듯한 엘튼 존의 음악과 함께 고기완자, 바지락 볶음을 맛볼 수 있는 곳. 만두를 팔지 않는 만둣가게, 산동포자.



정통. 중국. 요리. 만두.
이 중에 만두는 빼고.

부평역에서 한 정거장 가면 나오는 백운역. 여기에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중국요릿집이 있다. 간판과 외관에는 '만두전문점'이라 적혀있으나 쉽게 맛볼 수 없다. 주문 즉시 만두를 빚어서 썰내는 '제대로 된' 만두를 만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산동포자에서는 가게이름과 달리 만두를 맛볼 수 없을지 모른다. 주방이 그런대로 여유 있을 때는 만두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다. 수년 전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만두의 자태도 가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만두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면 내어주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다.

"맛있는 만두를 먹고 싶어 하면서 증기에 계속 찌면서 온기를 지키거나, 미리 빚어놓은 만두를 먹어.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지. 주문 즉시 빚어서 바로 찌먹어야 맛있지. 그렇게 먹는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요새 왜 만두를 안 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이다. 몇 주 전 예약하면 만두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받아주진 않으신다고 한다.

완벽한 만두를 위해 만두를 좀처럼 내지 않는 만둣가게라니. 요즘말로 신박하다. 산동포자에서는 가게 입구에 놓인 화이트보드 '오늘의 요리'에 적혀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판다. 이곳의 대표메뉴인 홍소스즈토우*와 바지락 볶음, 그리고 상라샤, 위상샤, 경장육사 등 낯선 이름의 요리들이 나열되어 있다.

무엇을 먹어볼까

뭘 먹을지 고민하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사장님이 되묻는다.

"여기 오기 전에 뭐 먹고 왔어?"

이때가 밤 열한 시였다. 특별히 뭐 먹고 온 건 없다고 했더니, 촉촉한 완자에 청경채가 통으로 들어간 부드럽고 걸쭉한 국물을 부어내는, 난자완스의 일종인 홍소스즈토우를 추천해 주신다. 메뉴 하나를 더 시키려 했더니 고기 요리에 더할 수 있는 바지락 볶음과 꿀뚜기 튀김 중 하나를 권하신다.

홍소스즈토우와 바지락 볶음으로 결정했더니 대뜸 "술은?"하고 물어보신다. 중국요리에 어울리는 칭타오 맥주를 얘기했더니 대뜸 연태고량을 추천한다. 소주를 마실 수 있다면 숙취도 없고 맛도 부드러운 연태고량도 좋을 거라 하면서.

결정. 연태고량주를 시켰다. 강하고 톡 쏘는 풍미를 지녔지만, 목으로 넘어갈 때는 부드러운 술이다.

홍소스즈토우*

직역하면 '붉은 사자머리'라고 한다. 정말 사자머리처럼 큼직하게 생겼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맛있는 시간

모락모락 김을 풍기며 홍소스즈토우가 나오고, 이내 매운 풍미의 바지락 볶음이 나온다. 먹는 방법까지 사장님이 손수 설명해주신다. 우선 홍소스즈토우를 숟가락으로 배어서 한입 떠먹어본다. 부드럽게 사르르 녹는다. 바지락은 젓가락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가져가 빨아 먹는다. 사장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라서 그런지 묘하게 더 맛있게 느껴진다.

음식을 먹는 동안 사장님은 옆에서 엘튼 존의 공연실황 영상을 보고 계시다. 요리에 연태고량을 곁들이며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대학생 시절부터 가게에 오던 친구들이 이제는 애 아빠가 됐다는 흐르는 강물 같은 세월 얘기부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까지. 요리와 술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장님의 두독한 이야기보따리는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른다.

이야기 도중, 이곳에 오랜만에 왔다고 했더니, “그럼 나 망해!”라고 하신다.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중국요리를 맛보여주는 곳인데.



차밍
루트

02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부평공원

설립연도 2002년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 일원

면 적 약 34,280평(113,123m)



“

미군부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든 부평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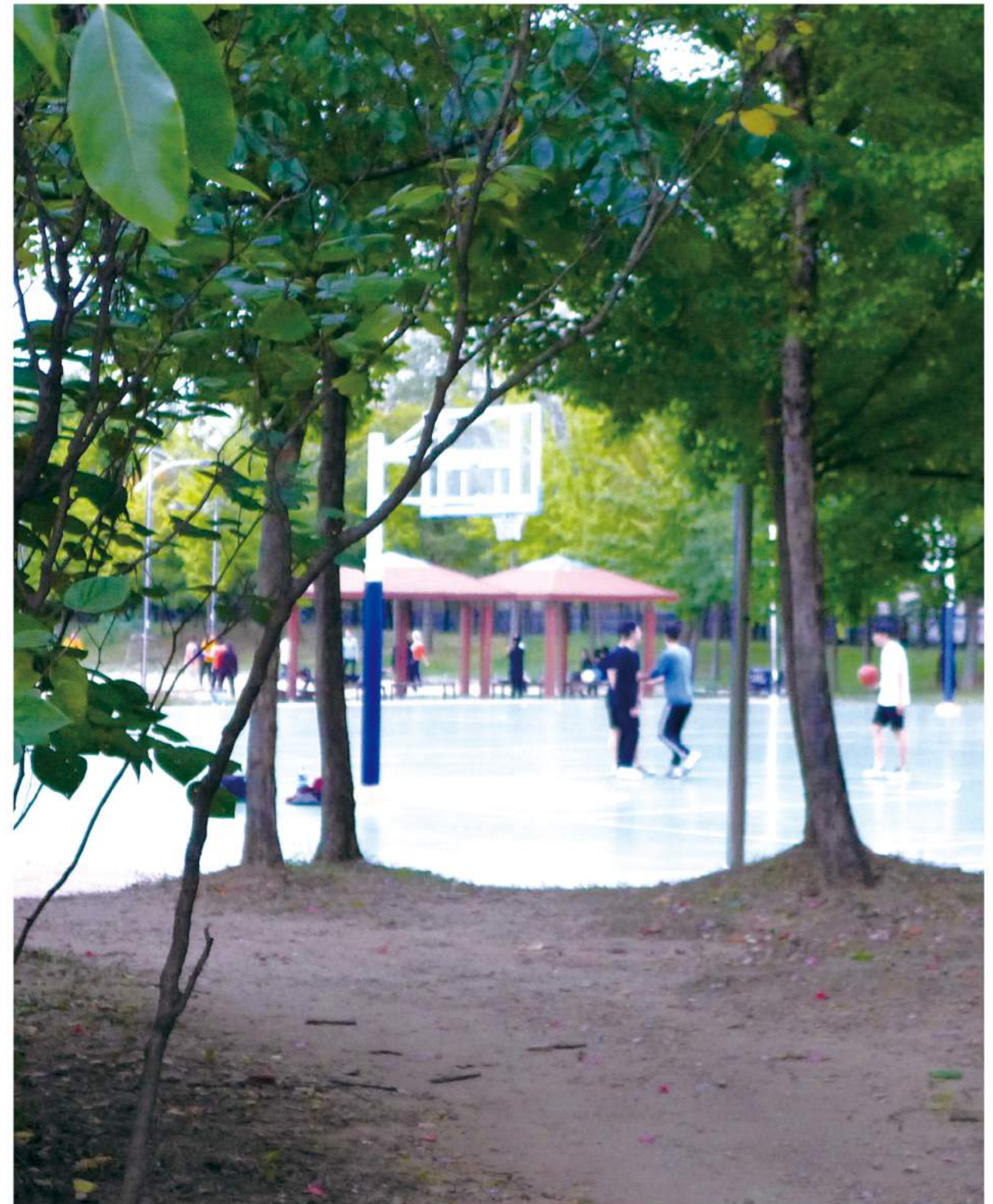
부평 한가운데에는 아름답디나무가 가득한 공원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 부대 부지를 반환받아 만든 부평공원이다.

개천이 흐르던 자리 옆,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만들어진 공원

부평공원을 둘러싼 차도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천이었다. 개천 주변으로 늘어진 판잣집들은 이내 단독주택과 빌라가 되었고, 개천 위로는 두껍고 무뚝뚝한 아스팔트가 덮였다. 부평공원은 1호선 철도 아래를 지나는 백운쌍굴과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오래된 철도 사이에 있다. 아주 크고, 관리가 잘된 공원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과 함께 공원 둘레부터 한가운데까지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리저리 나 있어서 두서없이 걷기도 좋고, 작심하고 운동하기에도 좋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공간,
변화하는 공원

90년대 말, 미군 부대 철수 후 4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2002년 개장한 부평공원은 꾸준히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우선 주변을 둘러보려면, 백운쌍굴 쪽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밴댕이 횡집 겸 실내포장마차들은 갈수록 성업을 맞이하고 있는 이 동네의 명물들이다. 외포리 '밴댕이', '벤딩'이 공원, 강화 '벤댕이' 등 '밴댕이'를 표현하는 맞춤법도 제각각이다. 주종인 해산물과 계절 메뉴를 포함 40종에 이르는 안주를 취급하는, 횡집과 포장마차의 중간에 위치할 이 동네 터줏대감 가게들을 필두로, 중식당, 고깃집 등이 생겨났다. 부평역 방향으로 올라가면 신축된 빌라와 예쁜 카페들을 볼 수 있다. 공원이 생긴 후 10여 년 간 이 주변도 많은 변화를 거친 것이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사람도, 이 주변에 사는 사람도 많아졌다. 부평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어느 빌라의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다면 새삼 부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부평공원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 초기에 나무와 광장, 산책로, 농구코트와 몇몇 체육시설이 전부였던 이곳에 지금은 인공개울과 연못이 생겼고, 화장실도 여러 개가 들어섰으며, 분수시설까지 생겼다. 그리고 2016년에는 따뜻한 백열등색 LED로 조명교체 및 확대 공사까지 마쳐 더욱 운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조명공사와 더불어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 또한 설치해 방문객들이 머물며 여가를 즐기기에 좋게 배려했다. 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못과 개울이지만 거기에 들어와 사는 녀석들이 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빼곡한 회색빛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청개구리, 황 개구리들과 도마뱀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공원의 생태계가 청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일 게다.





두 얼굴을 가진 공원

부평공원은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달라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낮에는 뉴욕 센트럴 파크 부럽지 않은 도심 속 녹지 공원으로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저녁에는 운치 있는 조명 아래 근사한 산책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로 매력을 뽐낸다. 면적이 크고 갈림길이 많아 여기저기 계속 다니고 또 다녀도 새로운 맛이 있다. 공원 곳곳에 숨겨진 예쁜 장소와 언뜻, 동산, 정자 중에서 애착어린 장소를 찾는 재미도 있다. 나도 이곳에서 나만의 장소로 점찍어두고 찾아가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새벽 한 시가 되면 이곳은 조명 일체를 소등한다. 공원은 순식간에 어둠에 둘러싸여 숨을 죽인다.

도시 한복판의 숲

그렇게 최소한의 것만 남긴 채 빛이 사라진 새벽 시간이 바로 이곳의 백미다. 공원면적의 70% 가까이 채우고 있는 울창한 나무숲과 풀이 내뿜는 향내가 공원을 가득 채운다. 도시에서 맡을 수 없는 내음이다. 불과 수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는 아파트단지와 변화가가 있다. 그곳에선 모두 도시 냄새가 난다. 도시가 가진 것들의 냄새. 어떤 때는 차분하고 잔잔하지만, 어딘가 밋밋하고 허전하며, 어떤 때는 온갖 음식과 땀, 담배 연기와 알코올이 뒤섞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질리도록 익숙한 냄새들. 이런 냄새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부평공원은 여여(如如)하게 자산만의 내음을 풍긴다. 이곳은 어엿한 숲인 것이다. 팍팍한 일상 속, 회색빛 도시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녹색도 실컷 보고 심호흡도 한껏 해보고 싶다면 부평공원을 추천한다.



차밍
루트

03

인적이 드문 한산한 골목에

히비끼

설립연도 2013년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77-10
영업시간 17시~1시,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032.516.0062
좌 석 수 8석
공간규모 약 21평(69.3㎡)



“

히비끼

메아리, 여운, 그리고

”

울림. 반응. 일본어 사전에 기재된 의미는 그렇다. 부평공원 근처. 부평으로 가는 초입. 백운 신촌동 골목에 불을 밝힌 히비끼(히비끼)가 있다.

필요충분 요소를 갖춘

일본식 선술집

이자카야(いざかや). 술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음식을 함께 내놓는 일본식 선술집. 전국적으로 많은 이자카야가 생겼고 또 생기고 있지만 어설픈 흥내만 낸 곳도 있고, 맛이 그다지 인상 깊지 않은 곳도 많다. 그런 와중에 자주 들르는 동네에서 제대로 된 곳을 찾는다면,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히비끼가 그렇다. 가게 이름이 세 글자로 쉬우면서도 '울림, 반응'을 뜻하는 단어라, 어감과 의미가 두루 좋아 같은 상호의 가게가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개 있다. 그렇지만 이곳은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이자카야의 불모지였던 백운 신촌동에, 그것도 인적이 드문 한산한 골목에 용감하게 가게를 낸, 배짱 있는 곳이다. 지금은 밤이면 사람들로 붐비는 동네의 명소가 됐다.



일본식을 기본으로 하는 안주 요리의 향연

히비끼의 안주메뉴는 허기질 때도, 간단하게만 곁들이고 싶을 때도, 적당하게끔 폭이 넓고 구성이 알맞다. 닭이 주재료가 되는 꼬치부터 나가사키 찜빵 같은 국물 요리, 숙성 참치회의 일종인 참치 타다키(たたき), 일본에서 '타코'라고 통칭하는 문어 혹은 낙지를 잘게 썰어 고추냉이에 절인 타코와사비(タコわさび) 같은 일 품요리, 고등어, 삼치, 메로 세 종류의 생선구이, 치킨 가라아게(からあげ), 게살 크로켓 같은 튀김, 그리고 술과 함께 가볍게 곁들일 수 있는 노가리, 황도 같은 간편 메뉴까지. 식도락가부터 주당까지 고루 이끌려 들어서게 할 만한 메뉴들로 준비하다.

술은 일곱 종류의 병과 종이팩 사케(さけ)부터, 일본 마쓰이 주조회사(matsui sake brewing company)의 대표제품인 센노유메 사케를 따라 내는 도쿠리(병술)와 잔술, 그리고 하이볼과 생맥주, 소주, 청하까지 취급한다. 이자카야로서도, 동네 술집으로서도 충실한 안주와 주류 구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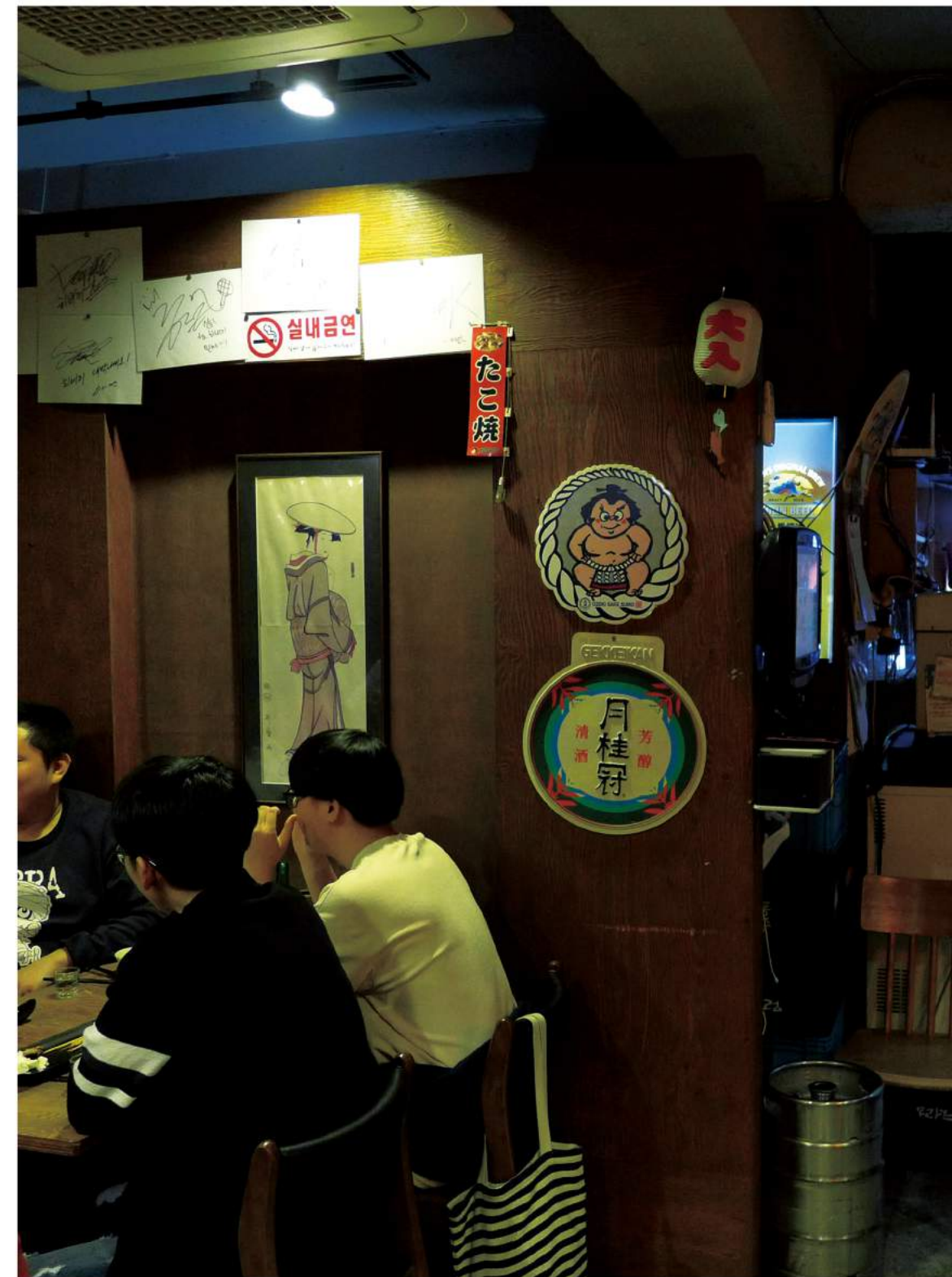
닭껍질꼬치, 일본식 빈대떡과 찜빵

이 집을 떠올렸을 때 으레 생각나는 메뉴는 닭껍질꼬치와 일본식 빈대떡인 오코노미야키(おこのみやき), 그리고 뽕양고 진한 국물의 나가사키찜빵이다. 닭껍질꼬치는 닭요리에서 푸대접받는 닭 껍질에 간 장양념을 살짝 입혀 담백하게 구워낸 것인데,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오코노미야키는 부드럽고 순하고, 신선하다. 가지런하고 반듯한 원형의 지짐 위에 가다랑어포와 데리야키 소스, 마요네즈를 뿌려 나온다. 이곳의 오코노미야키는 지짐의 색이 미(米)색에 가깝다. 바쁜 시간에 오면 겉이 갈색빛으로 띠며 좀 더 익은 상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겉이 약간 바삭한 상태가 되어 그것 나름대로 맛이 있다. 본래의 컨디션으로 나온 것은 이 집의 이름을 순식간에 각인시킬 만큼 맛있다. 이 집의 다른 음식들처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훌륭하다. 나가사키찜빵은 넉넉한 양과 푸짐한 건더기, 진한 국물로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 중에 하나다. 이 메뉴 하나만 시켜놓고 술을 곁들이는 손님들도 많다.

한숨 돌리고 싶을 때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선술집

이제 막 시작된 여유로운 주말 밤, 가게의 홀을 가득 채운 사람들. 그들의 웅성거림을 거름 삼아 피어나는 이야기꽃. 그 속에 나 역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인다. 좋은 안주와 술이 함께 하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간을 기꺼이 즐기고 그리워할 줄 아는 나에게, 히비끼를 권한다. 이곳은 네이버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곳 맞은편에 위치한 술집 '막전'의 주소로 찾아오면 된다. 가게끼리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된다.





차밍
루트

04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철도

부평 철길

설립연도 2002년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 일원

면 적 약 34,280평(113,123㎡)



“

부평의 오래된 기억을 마주한 기분

”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철도.
그 길을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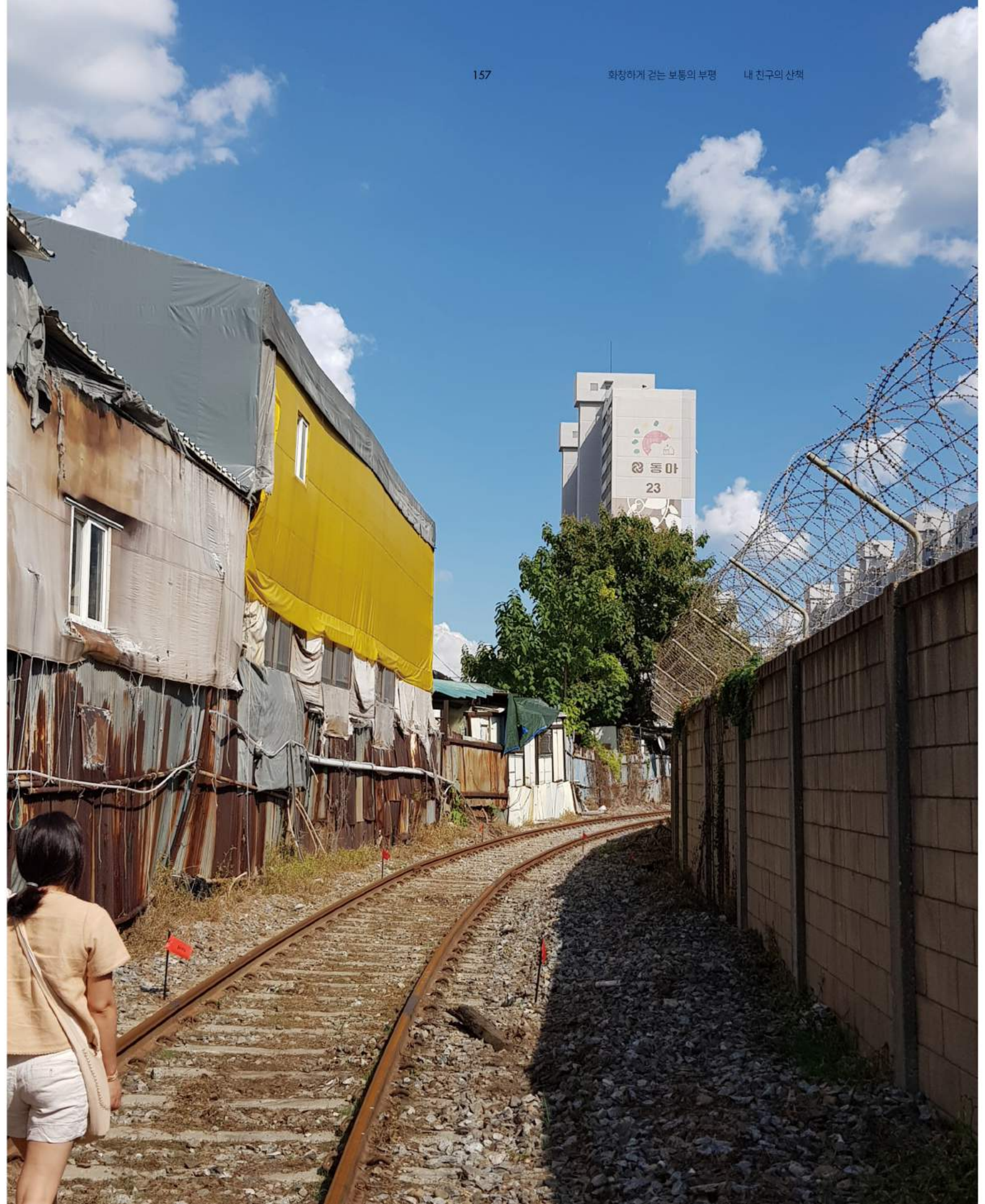
표지판 아래편, 오래된 철길

인천에도 신촌이 있다. 바로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부평공원 초입의 백운쌍굴을 지나가면 나오는 동네다. 왜 갑자기 신촌이냐고? 표지판을 봤기 때문이다. 부평역으로 향하는 길, 부평공원이 끝나는 지점엔 고가도로와 함께 부평역, 동수역, 신촌사거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인천에도 신촌이라는 지명이 있구나 하며 생경해할 즈음 뜻밖의 풍경이 보인다. 바로 노랑과 검정 무늬로 색칠한 철도용 신호등. 그 앞으로 철길이 차도에 비죽 불거져 나와 있다. 엉뚱하다.

자동차들이 수없이 오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풍경 사이로 부평의 오래된 기억을 마주한 기분이다. 철길에 고정된 시선을 통해 지나간 시간에 불현듯 손을 댄 느낌이다. 신호등을 등지고 철도가 이어진 길을 걸어본다. 하아, 이런 것을 두고 마성의 산책로라 부른다. 보도블록도 공원의 우레탄 블록도 아닌, 투박한 돌맹이들에 둘러싸인 녹슨 철길을 따라가는 코스. 이 철도로는 지금도 가끔 군용물자를 실은 기차가 다닌다. 소유도 국방부로 되어 있다. 철도는 반환을 앞둔 주한미군기지 측면을 지나다 기지 안쪽으로 들어간다. 길은 돌멩이와 녹슨 철도가 전부라 걷기 불편하다. 미군 부대 담벼락으로는 넝쿨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있고, 무궁화들도 한 아름 솟아 있다. 길 곳곳에 누군가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철도 주변엔 잡풀들이 무성하다. 소위 이런 걸 두고 방치되어있다고 표현한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관광, 관광 노래를 부르면서 왜 이런 길을 이대로 두고 있는 걸까?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주변 또한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까? 혹은 군사시설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이 부담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계속 걸어간다. 철길의 운치와 무관하게 차도 건너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부평의

숨겨진 포토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해서 이곳의 매력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부평 철길의 매력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사진이 '정말'예쁘게 나온다는 것. 일단 무단투기 쓰레기들은 앵글에 잡히지 않게끔 발로 슬쩍 밀어 치우거나, 그나마 깨끗한 자리를 찾자. 쓰레기 외에 잡풀, 냉쿨 식물, 무궁화, 미군 부대의 담벼락과 철조망들은 철도와 함께 이곳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는 감초 역할이다. 적당한 스팟을 찾았으면 함께 온 연인이나 친구를 찍어주자. 길게 늘어선 철길을 배경으로 철도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 위에서 있는 모습도 좋고, 철도 위에서 아슬아슬 수평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도 좋다.

햇살 좋은 날 이곳을 찾았다면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다. 오래전엔 하루에도 수차례 기차가 지나다녔겠지만, 이제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노쇠한 철길. 우리들의 시간 한 줌을 낚설고도 고요한 이 철길에 던져주고 추억의 인장을 하나 얻어 가는 것. 충분히 남는 거래 아닌가.

철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모퉁이를 돌아 더 들어가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철도가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철길을 더 걸으려면 철도길 모퉁이에 당도했을 즈음, 그 건너편에 보이는 주안장로교회 쪽으로 나간 다음, 그 앞길을 지나 아파트단지로 들어가 미군 부대 부지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면 된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철길을 계속 따라가면 산곡동까지 이어진다.

부평 철길은 '군용철로'라고도 불리고, '부평 산곡동 보급단 철길'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뜨문뜨문 물자를 실은 기관차가 지나다닌다. 운 좋게 때가 맞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다.

부평공원 맞은 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으며, 반환부지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고로 부지를 그대로 가로지르는 철길의 향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철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오래전부터 지켜져 온 그 모습을 싶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찾아가 보길 권한다.



차밍
루트

05

너(you)와 나(me)를 이어주는 다리

유미대교

설립연도	2015년
대표	김건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58-1, 1층
영업시간	평일 18시~1시, 금·토요일 18시~3시 연중무휴
전화번호	032.528.5840
좌석수	야외테이블 포함 18석
공간규모	약 35평 (115.5㎡)
S N S	instagram.com/bohee_son



“

너와 나를 잇고 싶은 날,
그런 날

”

분홍색 네온사인을 밝혀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술집이 있다.
그 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다.



마음을 잇는 대교

너(you)와 나(me)를 이어주는 다리. 어디 있냐고? 바로 부평에 있다. 서울에 양화대교가 있다면 부평에는 유미대교가 있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 유미대교'라는 네온사인이 반겨주는 가게 내부에서 우리는 서로를 잇는 가교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알코올을 붓는다. 마치 다리를 짓기 위해 시멘트를 붓듯이. 장사가 안되는 자리. 부평에서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가가 시작되는 비교적 후미진 상권에 유미대교가 놓인 것이 2015년 겨울이었다. 입점한 상점들이 수시로 바뀌던 곳. 유미대교도 그렇게 한산한 몇 개월을 보냈다. '다리가 계속 놓여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닌 채 그곳을 지나갈 수차례.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제는 자리가 모자라 줄을 서는 곳이 되었다.

네온사인 대교

다양한 모양의 백열전구와 자전거 바퀴, 고깃집 불판 덮개를 활용한 조명 아래로 하늘색, 분홍색, 연두색 플라스틱 의자들과 동그랗고 네모난 스테인리스 상판을 얹은 테이블들이 늘어져있다. 내장용 시멘트 벽돌과 우유 상자, 물류용 팔레트도 보인다. 천정의 시멘트 기둥에 늘어진 알전구까지. 단순하면서도 이색적인 분위기는 이런 디테일에서 나온다.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곧잘 흔들리는 미래 때문일까. 우리네 2030세대는 유난히 네온사인을 좋아한다. 처연하리만치 선명한 문장에 빛을 드리워 밝혀놓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다. 유미대교는 그런 네온사인 같다. 특별한 것 없이도 우리를 위로하는 네온사인.

친한 친구 같은 대교

유미대교는 메뉴설명도 재밌다. <거친 파도 거슬러 올라오다 잡힌 연어회>, <화끈한 그녀의 불 막창>, <너처럼 질기지 않은 문어회>, <여친이 해준 것보다 맛있는 떡볶이>... 재치 있는 이름과 함께 매월 제철식자재로 만든 월간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심지어 메뉴에 없지만 먹고 싶은 메뉴를 시키면 재량껏 요리해 주기도 한다. 친한 친구가 '술 한잔할래? 안주는 뭐 먹고 싶어?' 하면서 요리해주는 듯한 술집. 김치찌개, 불막창, 닭발, 두루치기, 짬뽕탕, 된장 전골, 고추장찌개 등 안주는 주로 소주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고 여기에 멜론 같은 과일 안주부터 계란말이, 치즈 김치전, 날치알 주먹밥, 도토리묵사발 등의 추가메뉴까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메인메뉴와 상성이 잘 맞는 구성이 갖춰져 있다. 주류도 소주부터 칵테일 소주, 생맥주, 하이볼까지 다양하다.

숨씨 좋은 대교

과하게 맵지 않으면서도 소주를 줄소환시키는 양념에 닭발과 양배추, 풋고추, 양파 등이 듬뿍 들어간 무뼈닭발, 은은한 미소 된장에 졸깃한 차돌박이, 오래 끓여도 풀어지지 않고 단맛도 과하게 우려나오지 않는 쥬키니 호박과 시원함의 대명사 콩나물을 담아 내놓는 차돌박이된장전골 정도만 맛봐도 이 유미대교 시공자의 숨씨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기본안주로 주는 코울슬로도 맛있다.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곁들여 너와 나를 잇고 싶은 날, 그런 날은 유미대교에 가야 한다.

164 김동균의 산책:차밍루트 05 유미대교

WANTED

WE ARE LOOKING FOR YOU ME

유미를 찾습니다 ?

1. 내 이름은 '유미'
2. 다리 밑에서 태어나신 분
3. 여길 너와 나의 아지트로 만드실 멤버
4. 유미대교와 인친,페친,레알친구 되실 분
5. 특유의 오덕 기운이 있어 재능을 뽐낼 분
6. 오늘날 사는 것처럼 술드시는 분

최저가보상
유미대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단체석 이용수칙



하루 오직 한팀! 8인 이상! 유미만 예약가능!
사전예약 필수! 당일예약 장담 못함.
인당 한병은 필수! 두병은 센스! 세병은 땡큐!

사우팅, 어깨빵 금지! 쫓아냄!
정 하고 싶음 테마의 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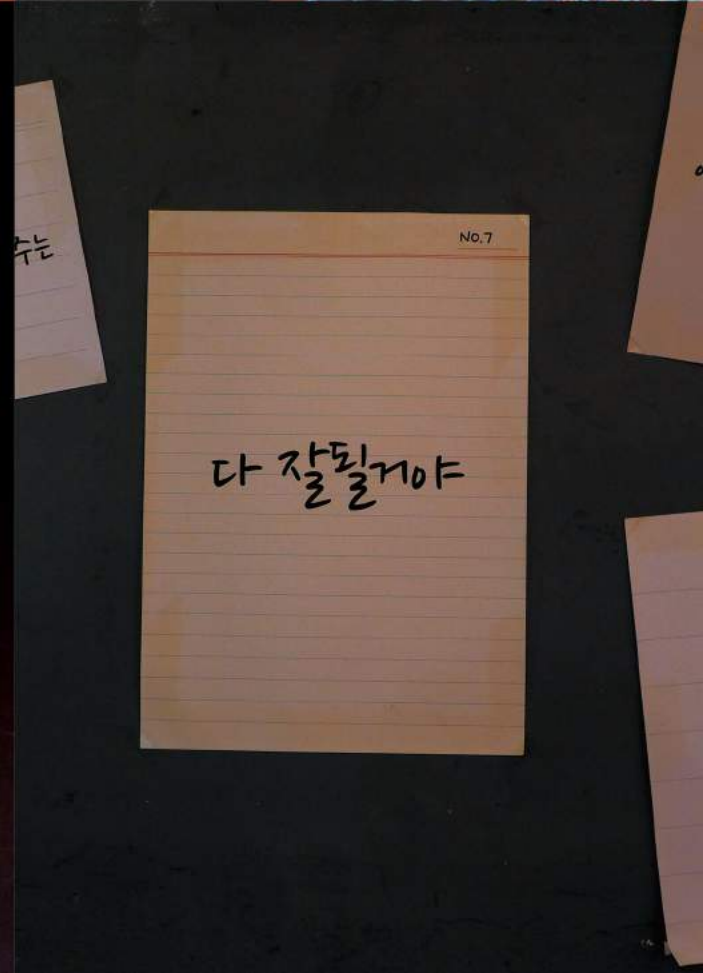



너와나를
이어주는다리
유미대교



유미대교 사용설명서

하나 우리의 술은 마르지 않도록하자 별은 한번만!! 기다림과 배려는 섭스를 부른다 유미처럼	네댓 모범손님 단골손님 여자손님 주당손님 전격우대
두들 먹고 싶은 양주 있으면 말하기 할 수 있음 내 해본다 유미	다섯 게임X 헌팅X 생파노레X 주점X 썸박질X 산청곡이 포장O 섭소O
세에 화장실 에디션 올가는 집에서 구토는 앞마당에서 담배는 밖에서 레이드는 퍼스트 유미	여섯 이쁘면 더준다 유미도 더준다 이쁘데 이름이 유미면 그냥준다 유미대교





분수대에서 만나 부평역 지하상가

설립연도 1978년 신부평지하상가, 1986년 부평역지하상가,
1989년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대아지하상가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일대 지하
(지하철 1호선 부평역과 연결)

영업시간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부평역지하도상가와 신부평지하상가
둘째, 넷째 주 화요일 부평역사쇼핑몰, 부평대아지하상가,
부평중앙지하도상가 휴무
영업 10시~22시(일부 가게는 가변적으로 오픈)

면 적 직경 1.8km, 약 9604평(총 31,692m)

점 포 수 1400여 개



“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

부평역 지하상가는 분수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부평사람들은 모두 안다. 부평에서의 만남은 분수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평에서 만날 때, 항상 약속을 정하는 대화의 마무리는 '분수대에서 만나'이다.

웰컴 투

부평지하던전

출구가 총 33개(1번~31번까지 31개의 출구에, 20번과 21번 출구는 a, b로 나뉘어져 있어 2개가 더 붙는다)에 이르는 전국최대규모의 지하아케이드 들어갔다 하면 길을 잃는 사람이 태반인 지하던전. 하지만 굳이 출구를 찾지 못해도 괜찮다. 이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옷가게. 그리고 구두, 신발, 시계, 화장품, 각종 악세사리, 안경, 문구, 미술재료, 책, 스마트폰까지 쇼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항목들이 이곳에 한데 모여있다. 여기에 네일아트, 카페, 푸드코트, 패스트푸드점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



옷값이 순진합니다

가게 이름 중 하나, '옷값이 순진합니다'. 비단, 이 가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살 수 있다. 게다가 베테랑 수선사들이 모여 있는 수선가게들도 자리하고 있다. 옷에 문제가 생겼거나 기장, 품 등을 줄여야 할 때, 부평지하상가의 수선가게만 이용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불경기? 온라인으로 인한 소매업의 종말? 이곳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부평역 지하상가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자신만의 쇼핑을 즐기거나, 미로 같은 길을 타고 목적지로 향한다. 학생도, 커플도, 모녀도, 부부도, 가족도, 모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지하의 작은 세계를 구경하기 바쁘다.

던전에서 길을 찾는 방법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발아래를 잘 살피길 바란다.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출구와 주요 스타트 등을 표시한 안내판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엔 전자안내판도 도입되어 이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을 돕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이곳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복잡한 구조뿐만이 아니다. 수천, 수만 종에 이르는 '살 것'들이 당신을 현혹할 것이다. 눈길이 가는 대로, 발길이 향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간 가게들의 셔터가 닫힐 때까지 지나지 못할 것이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발아래를 살피며 동시에 위도 잘 살펴야 한다. 천장에는 출구 번호와 출구 인근의 공간을 적어놓은 표지판들이 사람들이 헛갈릴만한 갈림길이나 불안하리만치 길게 이어지는 직선거리의 중간중간마다 설치되어 있다. 그래도 헛갈릴 때는 무조건 지하상가의 중앙으로 가라. 지하상가의 중앙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여인조각상에 이르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표시한 표지판이 있다. 그곳에서 다시금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을 정비할 수 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열심히 표지판을 살피며, 지름신의 유혹과 지난한 실랑이를 벌이며 지하상가 곳곳의 지리 익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곳의 머리 위로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려낼 정도가 되면, 바닥이나 천정의 표지판 없이도 한 번에 가고자 하는 장소로 나갈 수 있게 되면, 그때 당신도 부평러가 된 것이다.





차밍
루트

07

아름답고 불안한 청춘들의 부평 테마의 거리

주소 강원대로, 시장로, 대정로에 둘러싸인 부평문화의 거리 건너편,
부평자하상가 12, 13, 20-A, 20-B번 출구 앞



“

밤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한다.

”

밤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한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춘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역설적으로 어두운 밤이 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부평의 밤은

테마의 거리에 있다

부평의 밤을 보고 싶다면 문화의 거리 옆에 위치한 테마의 거리로 가야 한다. 이곳의 테마는 바로바로 오색찬란한 유흥과 달콤한 쾌락, 그리고 들끓어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이다. 문화의 거리가 팬시한 식당과 카페, 옷가게와 신발가게 등 패션스토어로 채워져 있다면 테마의 거리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주점들로 가득하다. 고깃집부터 횡집, 모던바, 노래방, 부킹포차, 헌팅클럽, 와인바, 캐주얼펍, 감자탕집, 양꼬치집 등등...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





인천의

모든 젊음

밤이 되면 각양각색의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인다.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 무난하고 점잖은 옷차림부터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믹스매치,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탁월한 패션 고수까지. 다들 나름 자신만의 최선으로 멋을 부리고, 기대에 들뜬 눈빛으로 거리를 정신없이 수놓은 산란한 간판들 사이를 헤맨다. 젊음으로 상기된 풋풋한 욕구와 열망,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모호한 기시감 같은 만남 따위에 대한 기대가 공기를 가득 메운다. 인천의 청춘들이 모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다. 허공엔 담배 연기가, 바닥엔 담배 공초가 흩뿌려져 있고, 거리는 사람들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 같은 네온사인 조명, 찌렁찌렁 울리는 음악 소리, 발에 치이는 전단지 등이 온통 뒤섞여 어지럽다. 한주 중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곳의 정점이다. 술집과 거리가 젊음으로 가득 찬다.

수년 전엔 '에쿠스'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로 웨이터들의 모습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헌팅클럽이 들어서면서 명함이나 전단을 돌리며 호객하는 깔끔한 차림새의 청년들 정도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꾸만 노래방에 와보라고 명함을 들이미는 능글맞은 아주머니들도 있다.

아름답고 불안한

청춘의 한 페이지

중심거리 옆으로는 형형색색의 모텔들이 등대처럼 조명을 밝히고 입을 벌리고 있다. 두 손 꼭 잡은 돈독한 연인들에게, 혹은 순간의 찌릿한 스파크를 불씨 삼아 짧은 축제를 즐기려는 인스턴트 연인들에게 오롯한 돌만의 세계를 선물해줄, 작은 오아시스 같은 어둡고 은밀한 밀실들. 그렇게 오늘 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불안한 청춘들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면, 다들 어디로 갔을까.

매니아

<u>설립연도</u>	1997년
<u>대 표</u>	최경원
<u>주 소</u>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65번길 3
<u>영업시간</u>	17시~2시, 휴무일 변동
<u>전화번호</u>	032.522.9489
<u>좌 석 수</u>	바 10개, 홀 테이블 6개
<u>공간규모</u>	약 22평(72.6㎡)





“

자기만의 빛을 뿜으며
사람들을 반기는 곳

”

새롭고 세련되고 깔끔하고 깨끗한 것에 지칠 때가 있다. 녹진하고 어두운 지하에 틀어박혀, 질척하고 묵직한 음악에 둘러싸여, 맥주 한잔 홀짝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땐, 이곳을 찾아가면 된다.

우리들의 오래된 시간

오래됨이란 무엇일까. 오랜 시간을 지나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대략 이렇게 설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떠오르는' 지역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매번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기 바쁘고, 기존에 있었던 매장들도 리뉴얼에 적극적인 요즘, 상업 거리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게 이 '오래됨'이고, 이러한 시간의 나이트를 간직한 곳을 만나면 그래서 더욱 반갑다.

빛날 광, 미칠 광.

부평 문화의 거리 끝자락, 소위 '평리단길'이라 불리는 거리 초입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영문 네온사인 간판이 보인다. '매니아'. 어떤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과 조예를 지닌 사람을 뜻하는 단어. 영문 네온사인 옆으로는 한자로 '빛날 광'이 적혀있다. 매니아와 빛날 광? 사실은 '미칠 광'이었다가 손님들로부터 이름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빛날 광으로 바꾼 거라고 한다. 간판 하단에 매장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있는 since 1997. 매니아는 부평에서 22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뮤직바(bar)다. 그 자체로 부평 문화의 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지하, 어두운 조명, 그리고 블루스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블루스와 함께 건물 입구로 들어서면 지하로 이어지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계단이 나타난다. 저벅저벅 내려간다. 가게 입구가 가까워지면 오래된 노래방이나 호프집에서나 말할 수 있는, 귀퀴한 냄새가 코를 감싼다. 거부감이 들기보단 마음이 편해진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자신의 차림새가 어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근사한 풍경이 펼쳐진다. 작은 백열등이 어두운 실내를 비추고, 붉은 네온사인이 가게 내부의 무늬목을 은은히 물들인다. 테이블에는 통양초가 불을 밝히고 있고, 가게 벽면과 바 등 곳곳에는 재즈밴드를 형상화한 아크릴작품과 90년대에 제작된 공중전화기,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재즈음악가모형, 각종 맥주 브랜드들의 포스터, 철 소재로 꽃병을 형상화한 조명, 달마대사 그림이 담긴 족자, 일본만화 캐릭터 피규어와 사케 포장 상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시대의 물건들이 공존한다.



뮤직바(music bar), 그리고 이모

매니아에서는 레코드와 CD, 인터넷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신청곡을 비치된 메모지에 적어 사장님에게 주면 한 곡 한 곡 본인의 감상평을 써서 들어준다. 사장님은 자신을 '이모'라고 지칭한다. 필자는 평소에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모'라고 호칭하는 것을 내켜 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여기서만 큼은 절로 그 단어가 입에 붙는다. '이모'라고 부르며 대화를 시작한다. 신청곡을 적은 메모지를 내밀고, 술과 안주를 시킨다. 떡볶이를 시켰더니 직접 담근 고추장에 떡과 어묵, 양배추를 듬뿍 넣어 궁중팬 그대로 내어준다.

병맥주는 주문하는 것마다 각각의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컵을 준비해준다. 시키지 않은 안주도 먹어보라며 이것저것 가져다준다. 마시는 술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 것이라는 추측성 멘트를 덧붙여 준다. 신청곡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손님 여럿이 동시에 신청곡을 냈을 때는 가요, 올드팝, 블루스, 재즈, 브릿팝 등 온갖 장르의 음악이 뒤섞인다.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다. 지나면서 꼭 한 번 씹는 들러서 맥주 한잔과 신청곡 한 곡 정도를 청하고 싶은 곳이다. 역시, 손님들의 안목은 정확하다. 미칠 광보다는 빛날 광이 어울리는 곳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산란한 부평에서 자기만의 빛을 뽐으며 사람들을 반기는 곳이기도.

올드벤티즈

차밍
루트

09

인천패션의 성지

올드벤티즈

설립연도 2004~2005년
대 표 김광섭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65번길 121
영업시간 11시~22시, 연중무휴
전화번호 032.501.7758
공간규모 약 16평(52.8㎡)
S N S [instagram.com/marguerite1118](https://www.instagram.com/marguerite1118)



“

하나쯤 장만해도 좋을
나만의 아이템

”

부평을 지나다 보면 시선을 붙드는 옷가게가 하나 있다.
인천패션의 성지, 올드베티즈(old betty's)*.

부평의 보물창고

올드베티즈는 부평을 대표하는 옷가게다. 문화의 거리 초입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이어오다 2년 전 부평시장 인근 평리단길로 자리를 옮겼다. 동인천에서 시작해 오직 옷 장사 한 길만을 30년간 걸어온 사장님이 서울과 일본 등지를 수시로 오가며 각종 브랜드 아이템들을 직접 공수해오는 셀렉샵(select shop)**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사실 이곳을 처음 본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주로 구경만 할 수 있었을 뿐, 이곳의 옷들을 사긴 어려웠다. 하지만 많이 기웃거리기는 했다. 진귀한 아이템들로 가득한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필자의 패션 길라잡이가 되어주곤 했다.

부평의 풍경화 속에 없어선 안 되는 가게

몇 달간 부평을 찾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걸음 한 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올드베티즈가 없어진 것이다. 가게가 떠난 자리엔 알곳은 인형뽑기 가게가 시끌벅적한 싸구려 리믹스 음악을 날름거리며 들어서 있었다. 그때, 왜 가슴이 철렁했을까. 자주 가보진 못했지만, 마음이 헛헛했던 이유는 아마도 부평을 기억할 때 떠올리는 풍경 속에 항상 이곳이 자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도 올드베티즈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었다. 2016년, 슬슬 재밌는 가게들이 들어서며 생기를 더해가던 평리단길에 올드베티즈도 합류했다. 녹색의 단색배경에 한글 고딕 폰트를 사용한 특유의 간판이 새삼 반갑다. 옮겨간 자리도 오래전부터 있는 듯 자연스럽다.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주는 가게. 지역마다 그런 곳이 있다. 부평 특유의 모나고 거친 키치적인 감성, 끊임없이 흘러가는 유행과 함께 금세 지나가고 마는 생동맞고 하릴없는 이상한 옷들 너머로, 올드베티즈는 그렇게, 등대처럼, 빛나는 보석상자처럼 옷이 지닌 본연의 가치를 지켜왔다.

올드베티즈(old betty's)*

가게 이름인 올드베티즈는 그 유명한 만화캐릭터 베티에서 따온 것이다.

셀렉샵(select shop)**

운영자가 특정한 안목과 기준으로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들여와 모아놓고 판매하는 곳



구경하는 맛이 있는 가게

구경할 맛이 나는 가게

이곳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들의 분위기는 주로 빈티지, 캐주얼, 워크웨어, 스트릿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클래식 아이템들과 시즌별 트렌드를 주도할 브랜드 아이템들을 함께 선보인다. 쇼윈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브랜드와 어떤 스타일이 '핫'한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대략 한국에서 진가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취를 감췄던 미국의 청바지브랜드 리(lee)가 눈에 띈다. 국내 정식 수입 됐을 때 하필이면 속옷회사인 쌍방울을 파트너로 만나 유유히 사라져간 흑역사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리는 요즘 다른 패션스토어에서도 인기가 뜨겁다.



국내 브랜드부터 굵직한 글로벌 브랜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그 가짓수만 수십 종에 이른다. 셀렉샵이 많아진 오늘날, 다른 가게들과의 차이점이라면 그 안목의 깊이다.

켈티(kelty), 잼버리팩(the jamboree packs), 스프루스(spruce), 케이시(kaci), 필슨(filson) 등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브랜드들의 가방, 국내매장에서 구할 수 없는 고유한 색상의 나이키 에어맥스, 특유의 로고에 물방울 그래픽을 촘촘히 그려넣은 슈프림의 후드티, 네덜란드 브랜드 스카치앤소다(scotch&soda)의 피케셔츠, 빈티지 서핑웨어와 아웃도어 아이템 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브랜드 바튼웨어(battenwear)의 반바지, 디키즈(dickies)와 에드윈(edwin)의 일본판 데님, 각분야 장인들이 모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포터(porter)의 가죽지갑 등등. 패피들이라면 눈이 휘둥그레 해 질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3~5만 원대 중저가 아이템부터 20~30만 원대 고가아이템까지 두루 만날 수 있다.

매장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새 제품이다. 여기에 특별한 내력이 담긴 빈티지와 사장님이 직접 한 점 한 점 선별해온 세컨핸즈(구제)도 취급한다.

취재를 명분 삼아 실컷 둘러본다. 구경하는 동안 부평의 멋쟁이들이 수시로 다녀간다.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옷들을 꼼꼼히 살피고, 입어본다. 친구와 사장님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농담을 나누며 웃기도 한다. 구경하다가 고민에 잠길 때면 의자에 앉아 잠시 쉰다. 그렇게 천천히, 진득하게 한 시간을 훌쩍 넘긴다. 즐거운 광경이다. 하다 보면 근심걱정 다 잊고 빠져드는 것이 옷 구경 아니던가. 손수 선별되어 겹치지 않는 나만의 아이템을 하나쯤 갖고 싶은 이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하고 희귀한 아이템들을 만나고 싶은 이들 이라면 올드벤티즈로 찾아가 보자. 참고로 바로 근처 모퉁이를 돌면 자매 가게인 마거리트(marguerite)가 있다. 한글 간판과 옷들의 성격을 보면 같은 가게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옷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밍
루트

10

근사한 안부 인사

깨달

<u>설립연도</u>	2012년
<u>대 표</u>	손선웅
<u>주 소</u>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40번길 6
<u>영업시간</u>	12시~23시, break time 15시~18시 매주 화요일 휴무 (공휴일에 따라 변동)
<u>전화번호</u>	032.529.5251
<u>좌 석 수</u>	바 1개(12석), 테이블 6개
<u>공간규모</u>	약 28평(92.4㎡)
<u>S N S</u>	facebook.com/dequetal



“ 어떻게 지내? ”

“어떻게 지내?”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으레 던지곤 하는 안부 인사다.

이를 나에게 해본다면 어떨까? 나야, 어떻게 지내니?

요즘 힘들진 않니? 너를 둘러싼 일들이 힘들거나 버겁지는 않니?

Que Tal?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안부를 묻고 싶을 때 가장 취하기 쉬운 행동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인사를 전하며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는 것.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자신을 곰곰이 되짚어보는 것. 그런 되새김을 절친한 지인이나 사랑스러운 연인과 함께해도 좋을 것이다. 안부 인사는 주고받을수록 반갑고, 평화로운 것이니까. 께탈(que tal?)이 그렇다. 스페인어로 '어떻게 지내요?'라는 의미의 가게 이름처럼, 나의, 그리고 너의 안위를 새삼 실감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 이따금 버겁고 이따금 짓궂은 삶의 장난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미각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시름을 잊고 싶을 때가 있다. 께탈은 그런 때에 가는 곳이다.

인생 레스토랑

스페인과 이탈리아 음식. 여기에 와인. 께탈은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맛을 내긴 어려운 이국의 음식들을 제대로 차려내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고추장찌개와 비슷한 초리소 스투(sopa de chorizo)부터 새우와 마늘을 기름에 끓여낸 감바스(gambas al ajillos), 면 요리인 피데오(fideo), 라만차 지방의 전통음식인 피스토만 체고(pisto manchego), 볶음밥과 유사한 빠에야(paella) 등등, 생소한 이름의 스페인 요리, 스파게티니, 펜네, 페투치네 면을 사용한 오일, 토마토, 크림파스타부터 토마토소스 리조또, 크림소스를 얹은 빠세따 피자, 모차렐라 치즈를 얹은 페스토 피자 등의 이탈리아 음식까지, 구미를 담기는 메뉴로 가득하다. 특히 빠에야는 생살을 펜에 넣고 익힌 뒤 재료와 양념을 넣고 볶아 내는 것인데, 익숙한 듯 낯선 맛으로 술술 넘어간다. 쌀을 적당히 익히고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게 하는 조리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단순한듯하면서도 맛을 내기가 어려운 음식이다. 이곳의 빠에야는 매우 인상 깊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하우스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잠시고 일상의 시름을 접게 해줄 맛이다.

부평의 작은 스페인

입구의 포도나무, 벽에 그려진 이질적이지만 정감이 가는 벽화와 다양한 소품들, 빈티지한 조명과 테이블, 벽면의 사진액자들, 가게 정면으로 보이는 주방까지.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세련되고 이국적이면서도 아늑하고, 위트가 있다. 그리고 섬세하다.

평리단길이 소위 '힙'해지기 전부터 이곳에 문을 연 께딸은 그 맛과 매력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음식의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부평을 방문한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데려갈 수 있는 곳이다.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도 이런 완성도의 스페인, 이탈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음이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다.

이 글을 읽은 당신. 문득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 약속을 정하고, 께딸에 함께 가보면 어떨까? 근사한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차밍
루트

11

딱딱한 시름을 보관할 창고

창고재즈펍

설립연도 2017년
대 표 김현석
주 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65번길 17, 2층
영업시간 11시~1시,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070.4159.4359
좌 석 수 15개, 약 30평
공간규모 약 15평(49.8m)
S N S facebook.com/ChanggoJazzPub
 instagram.com/changgo_jazzpub



“

흥겨운 라이브 음악이
듣고 싶을 때,

”

여기 부평에, 당신을 기다리며 재즈를 가득 담고 있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다.

모두가

당신인 것들

‘all the things you are’. 직역하자면 ‘당신이 있는 모든 것들’. 보다 함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당신인 모든 것들’. 재즈에서는 유명한 레퍼토리. 그곳에 가면 편안한 재즈선율 속에 자신을 풀어놓고, 세상 모든 것들에 깃들 수 있을 것 같다. 창고재즈펍은 항상 붐빈다. 주로 여성 손님들과 커플 손님이 많다. 빈자리가 있을 때가 드물다. 이 글을 읽고 이곳을 찾았을 때 바로 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면, 당신은 운이 좋았다.



창고재즈클럽이 자리한 곳은 부평 평리단길 중에서도 끝자락이다. 2001년 오픈한 뒤 얼마 못 가 도산한 후로 줄곧 방치된 을씨년스러운 쇼핑몰과 오래된 가옥들, 그리고 주거형 빌라와 나이트 상가건물들이 위치한 그즈음에, 딱 봐도 오랫동안 비워져 자신을 채워줄 온기를 기다렸을 그 공간에, 창고재즈클럽이 등지를 튼 것이 바로 2017년 봄. 음악을 업으로 삼은 이들이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 그 뒤로 대략 일 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이곳은 부평의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재즈,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는 곳

인테리어는 공간 내부의 기본골조를 최대한 살린 방식이다. 벽면에는 세련된 안목으로 선정된 시각예술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14평 남짓한 가게 한 쪽에 위치한 아마하 피아노와 펄(pearl)사의 드럼세트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재즈연주자들을 만나 신나게 한바탕 놀아난다. 높은 천장과 벽돌, 정사각형에 가까운 내부는 협소하지만, 라이브연주의 소리를 전달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먹거리, 마실 거리는 어떤가? 먼저 마실 거리부터. (술에 대해서만 소개하자면) 국산 맥주부터 코젤다크, 불량1664 등 요즘 한창 인기인 수입 맥주에 이르는 22종의 병맥주, 카시스오렌지, 잭콕 같은 기본 칵테일부터 카라멜크림리큐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접목한 색시밀크, 토마토주스와 라거 맥주를 황금비율로 섞은 레드아이비어 같은 이색칵테일까지 아우르는 15종의 칵테일, 서양의 주요 와인 생산지의 뛰어난 와이너리들의 것들과 자체 하우스 와인까지 총 19종의 화이트, 레드와인이 구비되어 있다.

다음은 음식이다. 파스타, 리조또 같은 이탈리아 음식부터 이곳의 대표메뉴 중 하나인 스페인의 감바스, 퓨전중국식의 간풍새우, 와사비크림새우, 공연을 보거나 술 한잔을 곁들이며 간단히 즐길만한 튀김이나 샐러드까지. 잘 구성된 메뉴에 만족스러운 맛과 넉넉한 양까지 두루 충족시켜 예쁜 접시에 담아 테이블에 내어준다. 특히 파스타와 리조또는 오일, 토마토, 크림, 로제까지 두루 맛볼 수 있으며 절묘하고 적절하게 잘 삶아진 면이 흡족한 맛의 소스와 잘 어울린다. 이 집의 파스타는 면을 정말 잘 삶는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음미하게 좋을 정도로 익혀서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투움바파스타와 로제파스타 혹은 리조또를 추천하고 싶다. 야끼소바의 레시피를 접목한 야끼파스타 같은 이색메뉴도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음악 공간

부평에서 이토록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술을 즐기며 라이브 재즈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부평에 애정이 있는 부평러라면 충분히 감사할만한 일이다. 이런 공간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홀 한 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선 가끔 손님들이 떠들떠들 즉석 공연(jam)을 하기도 한다. 라이브공연이 있을 땐 뮤지션들의 연주를 초근접 거리에서 접하며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협소한 공간이 주는 장점은 명확하다. 소리는 퍼져나가기보단 응집되고, 연주자들의 표정 하나하나, 감정과 감흥이 오가는 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뜻한 긴장감과 호흡의 포개짐이 만드는 앙상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비스트로(bistro)로서도, 소규모공연장으로서도 훌륭하다. 맛있는 음식과 술 한 잔에 재즈 음악을 곁들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이곳이 정답이다. 건조한 일상의 팍팍한 시름을 보관할 창고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차밍
루트

12

베트남 본토의 맛 포다쌀국수

대표	응우옌 꾸엔 김석중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40번길 12층
영업시간	12시~20시 / break time 14시~15시 월요일 휴무
전화번호	032.516.6668
좌석수	15석
공간규모	약 22평(72.6㎡)
주차시설	인근 선주차장 70분 빈영로 주차장 60분 무료주차권 발행



“

변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맛, 고유의 맛

”

'전통' 한자어를 직역하면 전할 전(傳), 큰 줄기 통(統).
전해져 내려오는 큰 줄기.
사전적 의미는 민족, 공동체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행동 양식이나 규범 정도가 되겠다.

본격!

전통 베트남 쌀국수

부평에서 100년의 '전통'을 강조한 하노이식 쌀국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부평의 식당가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파다한 그곳, 포다(pho da)쌀국수다.
간판부터 예사롭지 않다. 우리나라 식당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깔끔한 서체와 세련된 레이아웃이 아닌, 이곳이 베트남쌀국수를 취급하는 곳임을 알리는 것만이 목적인 서체와 베트남 인형 사진. 간판만 봐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예감 아닌 예감이 든다. 간판은 마치 허술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무술 고수 같은 느낌이라까.
가게는 2층에 있다.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면 깔끔한 인테리어의 가게가 나온다. 소고기 쌀국수, 새우 쌀국수,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 베트남식 전통 튀김인 짜조, 볶음 쌀국수, 이색적인 맛의 본토식 분짜, 쌀로 만든 피로 고기, 버섯, 양파 등을 감싸 특제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롤라이스 페이퍼까지. 베트남 일상식의 핵심요리들이 모여 있는
메뉴판과 너머로 가게 곳곳엔 '전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쓰여 있다. 마치 가훈(家訓) 같다.

**전통이라는
자신감**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것이 아닌, 베트남 본토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유독 '전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전통식이기 때문에 당신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맛있다고 느끼든, 맛이 없다고 느끼든, 이것이 본래 전통의 맛임을 고하기 위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곳은 익숙하지 않거나 괴팍한 맛을 내보이며 전통이라고 우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전통'이란, 변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맛, 고유의 맛을 알려주고 함께 즐기고, 나누고 싶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곧 자신감이다.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

달콤하면서 고소하고 진한 육수에 적절한 굵기와 탄력을 지닌, 납작한 중간 면, 그리고 소고기와 숙주, 청양고추와 다진 쪽파, 고수, 칠리소스가 얹어져 나오는 소고기 쌀국수는 먹고 나면 금세 다시 생각날 만큼 맛있다. 맵고 얼큰한 맛을 좋아한다면 새우 쌀국수를 시키면 된다. 소고기 쌀국수와 새우 쌀국수 모두 스페셜메뉴가 따로 있는데,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더 깊고 진한 맛을 낸다.

볶음 쌀국수는 두말하면 잔소리. 베트남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인기인 분짜도 이곳만의 '전통'을 강조한 방식으로 맛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불고기 양념 맛의 국물에 구운 삼겹살과 고기완자가 담겨있는데, 이것을 당면 같은 식감의 쌀 면에 부어 먹는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이 일품이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는 바로 '반미'이다. 베트남식 샌드위치라고 부를 수 있는 반미. 바게트 느낌의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빵 사이에 각종 채소와 다진 고기, 그리고 전분을 섞은 걸쭉한 간장소스가 더해져 나온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 좋아서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많다. 이 외에도 베트남 보드카와 코코넛 주스, 워터메론티, 연유를 넣은 베트남식 커피와 레몬젤리주스 등의 별미도 맛볼 수 있다.

감히 평하자면,

인천지역 최고의 쌀국수 맛집

거기서 거기인 프랜차이즈 쌀국수엔 더는 흥미가 가지 않는 사람, 베트남행 비행기티켓을 끊지 않고도 베트남 본토식 쌀국수를 맛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포다쌀국수에 가보길 권한다. 개인적으로는 음식 평론가 황교익 씨가 선정한 강북지역 최고의 쌀국수 맛집 '파리하노이'와 동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본인 또한 오랫동안 맛있는 쌀국수의 기준을 '파리하노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다쌀국수 또한 그런 맛있는 쌀국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차밍
루트

13

정갈하고 세련된 온 더 바

- 설립연도** 2018년
- 대표** 강기호, 송원창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52 1층
- 영업시간** 11시~1시 / last order 24시, 연중무휴
- 전화번호** 032.505.2558
- 좌석수** 바 20석, 테이블 6개
- 공간규모** 약 42평(138.6㎡)
- 홈페이지** onthebar.modoo.at
- S N S** 커피 [instagram.com/onthebar_coffee](https://www.instagram.com/onthebar_coffee)
주류 [instagram.com/on_the_bar_2hop](https://www.instagram.com/on_the_bar_2hop)
과자 [instagram.com/guungwaja_](https://www.instagram.com/guungwaja_)



“

서울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줄어들었다

”

온 더 바 on the bar.

1. 바(bar) 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
2. 바를 경계로 나누는 소통
3. 바에서 보내는 시간

Nighthawks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nighthawks).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룬 채, 불을 환하게 밝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원 같은 순간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 속에는 세 명의 손님과 한 명의 가게 지기가 등장한다. 서로 일행인 사내와 빨간 드레스의 여인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하다. 가게 지기는 바 아래로 손을 분주히 놀리면서 고개를 들어 손님이 던진 대화에 응한다. 혼자 온 손님은 시선을 바(bar) 위로 떨군 채 고독에 잠겨있다. 깊은 밤, 이들에게는 순간이었을 시간이 화가의 손을 만나 영원이 되었다. 요원해 보였던 일출이 결국엔 오고야 말듯, 손님들은 어스름한 새벽녘에 체념한 듯 가게를 나섰겠지만, 그들이 떠나보낸 시간은 달아나지 못하고 끝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영원히 붙들린 것이다. 그렇게 호퍼의 그림 속 인물들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영원히 오지 않을 아침과 영구히 멈춰진 밤 속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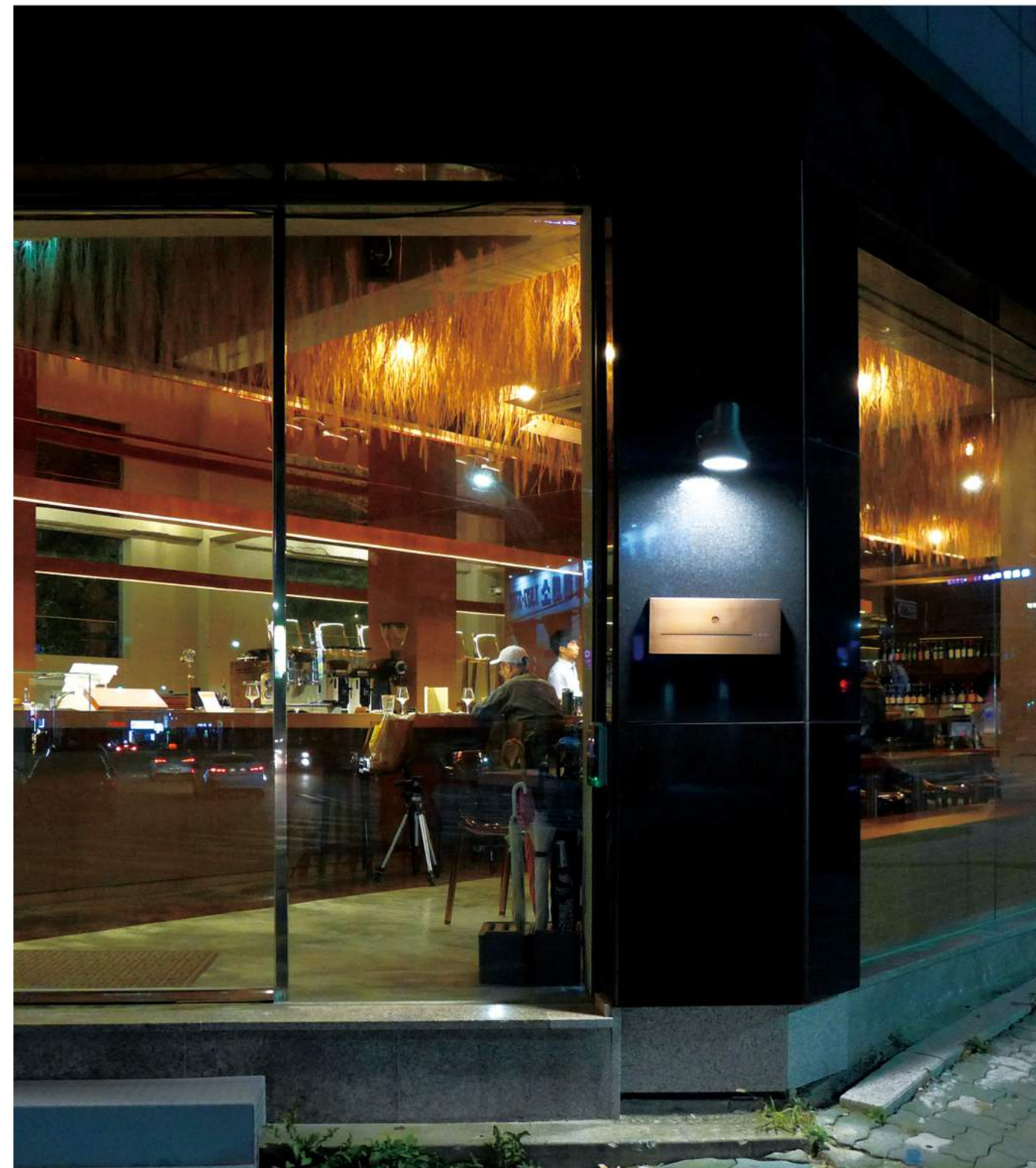
부평에도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같은 곳이 있다. 영원히 멈춰 있을 듯하지만 지나고 나면 찰나인 스산한 밤, 풍요로운 밤, 어딘가 비밀을 숨기고 있을듯한 그 밤을 붙들어드려고 만든 듯한 곳. 바로 평리단길 끝자락에 위치한 온 더 바.

평리단길에서 만난

호퍼의 그림

가게 전면의 통유리 너머로 바와 바텐더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바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딱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다. 들어갈지 말지 망설여진다. 공간에 비추어 자신의 복장을 돌아보게 할 정도로 정갈하고 세련된 공간이다.

부평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프랜차이즈나 전형적인 술안주와 소주, 맥주를 파는, 변화가의 흔한 주점과 부킹술집, 나이트가 전부였던 이곳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데, 이곳은 그중 최전선이자 정수라고 부를 만하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미흡함이 없는, 빼어난 인테리어와 조예가 깊은 메뉴 구성까지 갖춘 곳. 천장을 가득 메운 갈대들은 오래전 굴포전의 잣은 범람으로 갈대가 무성했던 옛 부평시장 터의 별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부평이 지금과 달리 허허벌판에 논밭과 공장, 단층주택들로 채워져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다.





술맛을 제법 즐긴다 싶은 사람도 아는 이름을 두세 개 이상 찾기 힘든 맥주, 와인, 위스키 리스트와 그런 귀한 술들과 곁들이기 좋은 하몽과 연어까지. 부평에서 술과 안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조예가 이토록 깊은 곳이 있었던가. 부평이 상업 거리로서, 한 도시의 자본과 물질,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데 모이는 대표적인 변화가로서 조성되고 번성해온 통사를 더불어 이런 공간은 있었던 적이 없다.

탈서울, 인부평

좋은 술과 안주, 그리고 멋지고 세련된 공간을 부평에서 즐길수 있는것이 낯설면서도 뿌듯하고, 안도감마저 든다. 이 정도 수준의 가게가 문을 열리라는 것은 문화의 거리에 터를 잡은 레베카, 테마의 거리 끝자락에 문을 연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그리고 평리단길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실력 있는 카페, 레스토랑, 펍 등을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온 더 바를 알게 된 후, 서울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줄어들었다. 꾸뻑꾸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다. 호퍼의 그림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다. 탄탄하고 단순하게 아로새겨진 목직의 바 앞 의자에 자리를 잡는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한 내부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무늬목과 스테인리스 스틸 파트를 덧댄 긴 바가 위치한 구조는 카페 엔트러사이트 서교점을 연상시킨다. 오크 색의 나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대한 단순한 인테리어를 지향한 점이 닮았다.

평리단길의 오아시스

두꺼운 크라프트 봉투에 담긴 메뉴판을 받는다. 120g/ml 정도 되는 무게의 미색 머메이드지에 인쇄된 메뉴판을 들여다본다. 10여 종에 이르는 생소한 드래프트비어와 하몽과 연어가 주(主)인 안주 메뉴, 30여 종에 이르는 싱글몰트위스키, 50여 종에 이르는 레드, 화이트와인, 그리고 메뉴판을 나와 있지 않지만 가게 한쪽 진열대에 줄지어 늘어선 80여 종에 이르는 병맥주까지. 단순히 부어라 마셔라가 아닌, 술이 지닌 내력과 맛 자체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만하다. 국산 맥주와 쓰디쓴 소주가 여전히 주류로서의 태반을 차지하는 부평에서 remizieres, hermitage cuvee emilie 같은 이름이 적힌 메뉴판을 보게 되다니! 그리고 많은 애주가가 손꼽아 애정 어린 헌사를 바치는 라가불린(lagavulin)을 버젓이 시킬 수 있다니! 출구 없는 그림 속에 갇혀 버린 양, 이곳에서 길을 잃고 싶은 기분이다.

부평의 깊은 밤을 헤매는 사람에게

온 더 바는 그런 곳이다. 기꺼이 갇히고 싶은 곳. 기꺼이 방문하고 기꺼이 머물고 싶은 곳. 밤의 표피가 어떤 질감이었는지 새삼 느껴보고 싶은 사람에게, 부평에서 밤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쉬운 사람에게 소개해주고픈 공간이다.



시장의 미스터리한 화가

부평시장 그림간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50

교 통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

부평시장* 곳곳에
그림이 숨어 있다

”

숨은 '그림' 찾기. 정말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다.

거대한 부평시장 곳곳에는 이름 모를 화가의 숨은 '그림'들이 있다.

부평시장에서 숨은 그림을 찾다

간판이 없는 상점이나 노점 곳곳에 달린 그림 간판. 형광 색종이에 색색의 매직으로 속삭삭 그린 그림과 강렬한 글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누가 그린 걸까? 자유롭고 거침없는 상상력, 분방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쉽고 분명하게, 한번 보면 쉬이 잊기 힘들게 만드는 표현력까지. 이런 그림 간판들이 부평시장 곳곳에 숨어 있다. 뒷조사를 시작해본다. 우선 그림 간판을 달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물어본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잡은 특제 논우렁을 판매하는 '화순우렁총각님'으로터 힌트를 얻는다. 가게마다 취급하는 메뉴와 광고할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막걸릿값을 받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옹거니. 첫 번째 힌트다. 이번엔 '공룡 알 찹쌀 도너츠 노점'에서 도넛 천 원어치를 사고 물어본다. 카트에 종이와 펜을 싣고 다니면서 시장에 필요한 종이광고판을 그려주고 다니신다고 한다. 어디 사는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 계속 있다 보면 나타난다고. 도넛을 한 알 한 알 무심한 듯 참 찰지게 그려놨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까.

그의 흔적을 찾아서

시장 구석구석을 살살이 살핀다. 사진을 찍고 다니니 상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나고 물어본다. '탐정입니다', 라고 하려다 만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부평의 매력적인 장소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그림 간판이 재밌어서 이것과 부평시장을 엮어서 글을 써보려고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나름 상세한 설명을 한다. 금세 고개를 끄덕이신다. 몇 마디 더 물어 오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숨은그림찾기를 계속한다. 정규미술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과과정의 비평 교육과 과제식 수업 및 평가 과정 따위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검열에 빠지기가 쉽다. 이는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자유가 작아질수록 그림을 그리는 재미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어느덧 그림을 손에서 놓게 되는 이들도 많다.

부평시장*

부평시장은 부평종합시장, 부평강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 자유시장까지 4개의 시장을 모아 한데 이르는 말이다.





바야흐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이래선 안 돼, 이견 부족해, 같은 자체평가부터 이런 걸 그려도 될까? 라는 내용검열,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그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상대될까? 라는 자기 비교까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그리고 더욱 진정으로 그림에 다가가기 위해선, 이런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가벼워야 한다. 여기에 그리는 재미까지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터보엔진을 단 셈이다. 여기 이 시장의 미스테리한 화가가 그렇다. 자유롭고, 얌매임이 없다. 그림이 너무 재밌다. 그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 거침이 없다. 진정한 화가고, 예술가다. 추적을 계속한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시장을 수색한다. 혹시라도 그가 흘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카트에 형광색 도화지를 잔뜩 싣고 한 장 그려보라고 영업을 하고 다니는 노(老) 화가를 직접 마주칠지도 모른다.

부평시장을 자신만의 갤러리로 만든 사람

찰옥수수, 토종닭, 논우렁, 도넛, 젓갈, 막걸리 한 사발, 생선, 목, 순두부, 냉커피, 주방용품, 김치, 고막, 양말, 새우, 장아찌, 간장게장, 오리 알, 아이스크림, 빼 없는 동태포, 금산인삼 등등 세상 만물이 그의 손길로 그려져 있다. 시장 전체가 그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가 된다. 반찬 점포 사장님과 양말점포 사장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 알고 보니 막걸리값으로 작업비가 계산된다는 것은 잘못된 증언이었다. 그림 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 화업(畫業) 또한 엄연한 비즈니스로서, 그는 시장 곳곳에 카트를 끌고 다니며 자신을 홍보하고, 각 점포에 어울릴만한 그림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들은 없지만, 그의 흔적은 시장 곳곳에 남아 그의 존재를 실감케 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 시장을 헤매길 이틀째. 좀처럼 그와 마주칠 수 없지만 구석구석 살핀 덕에 시장의 모습은 좀 더 자세히 들어온다. 이제는 찾을 만큼 찾았겠거니 하다가도 새로운 그림이 보인다. 정말 여기저기 잘도 그려놨다. 그의 최대절작은 김판조 닭강정 맞은편에 위치한 선술집 메뉴들과 이야기 그림들이다. 소주, 막걸리 한잔에 천원, 다른 데서 안주를 직접 사 와서 먹어도 되고,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어도 되는 이곳은 항상 단골들로 붐비는, 시장 내 아재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다. 장사하다가 갈증을 느낄 때면 탁주 한 사발 시켜 한달음에 마시고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상인분들도 많이 온다.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은 참으로 재밌다. 그리고 가게와 너무도 잘 어울린다.

부평시장의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의 성당 벽에 그려진 대가들의 벽화를 감상하듯, 선술집에 걸린 그의 그림들을 안주 삼아 탁주 한 사발을 기울인다. 옆자리 어르신이 자기 아들 같다며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식혜와 어묵도 시켜주신다. 그의 존재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거둔 뜻밖의 수확이다. 수사는 이쯤에서 마쳐야 하는 걸까? 직접 담근 달콤한 식혜 한 컵이 속을 부드럽게 달래준다. 시장의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까지도,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한다. 언젠가 그를 만나면 그림 한 점을 주문하고 싶다. 어떤 내용을 주문할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 수수께끼의 거장이 숨어있는 부평시장. 그의 그림을 찾아다니는 여정 속에 어느새 부평시장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들어준 수수께끼의 노화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언젠가 마주칠 그날을 기다려 본다.



차밍
루트

15

맛있는 칼국수만을 위해

원조고향 손칼국수

설립연도	1980년대
대표	안소희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2번길 2
영업시간	10시~20시30분, 일요일 10시~19시30분 연중무휴
전화번호	032.503.3957
좌석수	테이블 15개
공간규모	약 26평(85.8㎡)



“

그긴 줄.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

”

웬일인가 했다. 피크타임을 지나 한산하다 싶었는데, 웬걸,
가게 안은 다시 순식간에 만석이 되고, 바깥의 대기석도 금세 가득 찬다.

자리있어요?

넓은 간판과 오래된 샷시. 입구 쪽에 자리한 주방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자리 있어요?” 계속해서 물어오는 손님, 가게 안을 힐끗거리며 빈자리를 찾는 손님까지. 한자리 차지하고 칼국수 한 젓가락 하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원조, 고향, 그 무거운 단어

원조고향 손칼국수. 한국의 식당들이 맛과 전통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원조’와 ‘고향’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간 이름의 가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여기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 그에 걸맞은 수준을 갖추지 못하면 실망과 핀잔이 뒤따른다. 고로 음식을 담아내는 식당으로써 양날의 검과 같은 이름이다. 맛있으면 이름 그대로라며 찬사가 돌아온다. 그와 반대라면 손님들은 등을 돌린다. 원조 고향 손칼국수는 전자에 속한다. 원조, 고향, 이 두 단어가 모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심플’하다. 말 그대로 직접 반죽하고 썰어낸 손칼국수가 주메뉴다. 메뉴는 딱 네 개다.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콩국수.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가 각각 4,000원이고, 여기에 1,500원을 더 보태면 곱빼기를 먹을 수 있다. 진하게 우려낸 콩국을 맛볼 수 있는 콩국수는 6,000원. 원조고향 손칼국수는 부평시장에서 수십 년째 한자리에서 영업해온, 말 그대로 원조이자, 고향 같은 칼국숫집이다.

어렸을 적 집에서 해 먹던

손칼국수의 그 맛

깔끔하고 개운한 멸치육수와 1등급 중력분으로 반죽한 쫄깃함 반, 서걱함 반의 면발. 육수도 중요하지만, 면도 정말 중요하다. 일단 쫄깃하기만 해선 안 된다. 투박하게 빳고 자르고 뜯어낸 면이나 수제비를 그대로 뜨거운 육수에 성글 내던져 대강 익혔을 때의 그 투박하고 무뎉뎉한 서걱거림이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넉넉지 못하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별미로 톡톡 만들어 먹던 우리네 칼국수와 수제비가 지닌 본연의 맛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간신히 만들어 먹던 거친 원형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 후지지만 맛있는 맛. 그것이 바로 성글고 어설프지만, 결코 잊히지 않고 떠올릴 때마다 군침을 삼키게 하는 질박한 옛 손칼국수 본연의 맛이다. 사실 칼국수는 한국 근현대의 넉넉지 못한 시기를 너머 조선 시대 요리책에서도 그 기록이 발견되는 복합적이고 유서 깊은 음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옛 손칼국수를 떠올릴 때의 그 맛은 고급스러움,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있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서게 하는 것은 향수 때문이 아니라 맛 때문

칼국수면, 혹은 수제비를 후루룩 먹으면 이 집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오래전 먹을 수 있었던 옛날 그대로의 칼국수. 그중에서도 참 맛있는 칼국수를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다. 게다가 칼국수의 맛을 조화롭게 뒷받침하는, 곁들여 먹기 위한 최적의 간과 양념으로 절제된 김치와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는 칼칼한 양념장까지.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다. 칼국수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들이 착실하게 갖춰져 있다.

칼국수와 함께 펼쳐지는 재밌는 풍경

가게 안의 풍경도 재밌다. 칼국수가 언제 나오느냐며 툴툴거리는 손님들, 이미 먹고 있으면서 비 올 때 오면 더 맛있겠다며 입맛을 다시는 손님들, 곱빼기 그릇이 기본 그릇과 다른 걸 보고 한바탕 웃어 재끼는 손님, 자리가 언제 날까 싶어 눈을 부릅뜨고 가게 안을 뺨뺨 쳐다보길 반복하는 손님, 이미 이곳에 셀 수도 없이 왔다는 듯 일상적인 표정으로 칼제비를 '섞은 거'라고 부르며 주문하는 손님까지. 이곳의 풍경도 칼국수 한 그릇의 실한 반찬이 된다. 그렇게 칼국수 한 그릇이 금세 비워진다.

실 새 없이 줄이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 전혀 모르는 손님끼리도 자연스레 합석하게 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젊은이가 같이 앉아 있으면 마치 가족이 온 것처럼 보인다. 전혀 모르는 사이여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있어서인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교환하지 않는데도,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인다.

바쁜 시간에는 거스름돈을 돌려줄 겨를도 없어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 음식이 늦게 나와서 불만인 손님에겐 오늘은 줄이 길지 않은 편이라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며 달래고, 칼국수를 서빙하는 길목에 뺨뺨 다리를 내놓고 있는 손님에게는 진로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서도 엉덩이가 무거워 자리를 뜨지 않은 손님에게는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한다.

칼국수의 왕국

손님은 왕? 그런 건 여기 없다. 이곳에선 주방장과 홀의 직원, 그리고 손님까지 모두 오직 단 하나, 맛있는 칼국수만을 위해 연대한다. 마치 어떤 거대한 칼국수의 흐름, 향연을 만드는데 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이곳의 왕은 칼국수인 것이다. 그렇게 원조고향 손칼국수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덥든 춥든,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긴 줄이 만들어진다. 그 긴 줄.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

더 가볼만한 곳

간고

이제는 '여인숙거리'라는 말보다 '미안마 거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부평 광장로 4번길에 문을 연 미안마 식당 '간고'. 메뉴판에 한국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미안마인 사장님과 떠들떠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이곳에서 취급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상의한 후 주문을 해야 한다. 볶음밥과 볶음면, 우리나라의 갈비와 비슷한 돼지고기 조림 등, 낯설지 않은 메뉴로 미안마 음식에 도전해볼 수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4번길 29
전화번호 010.4860.3581
영업시간 9시~20시

카페 그리고

메뉴를 시키면 미술 재료와 종이를 주는 카페 '그리고'. 차분하고 아늑한 인테리어 속에 누구나 화가가 되어 볼 수 있는 이색카페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수채화 붓, 색연필, 사인펜 등을 손에 쥐고 그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 정겹다. 커피는 물론 밀크티, 수제 브라우니 등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의 완성도도 높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79번길 5
전화번호 010.6262.0483

영업시간 평일, 공휴일 13시~22시, 주말 13시~23시
월요일, 화요일 휴무

S N S [instagram.com/draw3paint](https://www.instagram.com/draw3paint)

슬로스

드디어 부평에도 제대로 만든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질 좋은 리큐르와 정석 레시피, 절도 있는 움직임의 셰이킹을 통해 만들어내는 칵테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부평에도 생긴 것이다. 2018년 9월 말에 문을 연 레코드바 슬로스(sloth)가 그곳이다. 준비된 주류와 잘 어울리는 안주, 매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jbi사의 하이엔드 스피커, 빼어난 인테리어 까지. 가게 이름처럼 손님들을 행복한 나무늘보로 만들어 줄 것이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79번길 19 2층
전화번호 032.272.7276
영업시간 18시~3시 / 월요일 휴무
S N S [instagram.com/slothincheon](https://www.instagram.com/slothincheon)

비하니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인도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인도&네팔 요리전문점. 비하니 만의 특별커리 등 이곳만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과 맛과 향이 강한 다양한 본토식 인도, 네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식도락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 인도식 파인인 사모사 같은 에피타이저 메뉴부터, 수십 종류의 채소, 육류, 해산물 커리, 탄두리 치킨과 네팔식 볶음밥 같은 식사메뉴, 요거트의 일종인 라씨 같은 디저트 메뉴까지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4번길 13
전화번호 032.525.8771
영업시간 11시30분~23시, 연중무휴
홈페이지 bihanee.com

부일안창살

오랜 기간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사장님 부부가 차린 고깃집. 부평의 식도락가들에겐 이미 유명한 숨은 맛집이다. 메인메뉴는 안창살로 1인분에 14000원, 메뉴는 그 외에 생삼겹살, 육회, 육사시미가 전부다. 삼겹살을 제외한 소고기 메뉴는 모두 국내산으로, 선홍 빛깔의 싱싱함이 살아있다. 기본안주로 나오는 칼칼한 김치 지짐이가 자꾸 생각나는 집. 가격대비 양도 넉넉하다. 낯고 허름한 가게에 웅기증기 모여앉아 훌륭한 고기구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1-1
전화번호 032.505.8443
영업시간 16시~1시, 일요일 휴무

썸머썬셋

평리단길 끝자락, 부평대로 쪽 모퉁이에 위치한 캐주얼업.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 와인, 맥주와 감자튀김, 토띠아, 피자, 김치볶음밥 등의 안주를 즐길 수 있다. 흐르는 음악도 공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부담 없이 한잔 걸치며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오기 좋은 곳.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50 2층

영업시간 17시30분~1시, 연중무휴

부평모밀국수

황해도식 냉면의 달인 장세돈 대표가 운영하는 냉면집. 물 막국수(물냉면), 비빔 막국수(비빔냉면), 돼지 수육, 녹두빈대떡, 메밀만두, 만둣국 등 냉면집에서 오래 볼 수 있는 단출한 메뉴 구성이지만 맛은 특별하다. 메밀로 만든 면발은 서걱거리며 고소한 풍미를 내고, 깔끔한 육수는 부드럽게 뱃속으로 넘어간다. 겨자 대신 까나리액젓이 있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3번길 10-8

전화번호 032.514.5535

영업시간 11시~21시 / 계절별 휴무일 상이. 주로 일요일 휴무

포그커피

부평역 북광장, 부평 역전지구대 뒤편에 생긴 세련되고 감각적인 카페. 맛 좋은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 메뉴와 세심하게 공들인 인테리어까지 오감이 즐거운 곳이다. 밖에서 보면 도회적인 라운지가 연상되기도 한다. 부평의 힙스터들이 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4번길 8

전화번호 032.502.0830

영업시간 11시~22시30분 / 연중무휴

S N S instagram.com/fog.coffee

icu(아이씨유)

평리단길 한 쪽에 문을 연 여유로운 느낌의 카페. 깔끔하고 훌륭한 음료 메뉴와 기본기 탄탄한 베이커리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길종상가로 잘 알려진 박길종 작가의 워트 있는 스테이بل도 만날 수 있다.

공간을 군더더기 없이, 경제적으로 참 잘 꾸몄다는 인상을 준다.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넉넉한 햇살과 함께, 부분부분 살리고 남겨놓은 공간의 오래된 흔적과 새로운 시간을 위한 단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8번길 22

전화번호 010.9567.9900

영업시간 10시~21시 / 월요일 휴무

S N S instagram.com/cafeicu

부평 타코야끼

부평 문화의 거리, 우리은행 맞은편에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하고 있는 타코야끼 명인이 있다. 타코야끼는 집마다 크기와 반죽, 내용물이 약간씩 다른데, 이곳은 큼직하고 부드러운 문어 빵에 굵직한 말린 문어가 들어가 씹는 맛이 살아있다. 빵에 들어가는 문어의 크기는 필자가 아는 타코야끼 가게 중 가장 큰 것 같다. 이쑤시개로 한 점 찍어 입에 넣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부평에 가면 꼭 생각나는 곳 중 하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2번길 16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맞은편 노점

낮선 이가 바라보는 도시

부평에 와볼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부천에 사는 친구들의 사는 곳은 기억에 남겨두어도, 부평에 사는 친구들은 인천에 사는 정도로 생각했다. 부평에 관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꺼내어보니, 학창시절 친구들과 지하상가에서 윈도쇼핑을 하러 잠깐 들렀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마저도 흐릿한 기억이다. 지역의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인천 하면 영종도나 월미도를 떠올리게 했고, 부평은 대우자동차의 공장이 위치한 공장지대쯤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산업이나 차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대우자동차가 위치한 것도 나중에 덧대어진 기억이고, 그냥 공장이 있는 회색 도시쯤으로 떠올랐다.

부평을 탐색하던 중에 한자로 쓰인 지명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지명은 그곳의 의미, 정체성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 맺는 시작점이니. 부평(富平) 지명은 평지가 많은 도시, 평야와 농지가 많아 붙여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지금은 농지보다는 공원 녹지가 많다. 아파트 단지, 키 낮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일반 재래시장과 지하상가가 건재한 지금의 부평 모습을 대조했을 때 한자가 다르게 풀이된다. 풍요로움이 평등한 도시, 그래서 잘 살고 못 삶의 격차가 크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의 도시. 해석을 달리하니 요즘 이름 같이 읽힌다.

몇 년 전부터 일을 계기로 부평을 경험하게 되었다. 거주지였던 서울에서 일터에 다다르기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4번 갈아타고 10여분 을 걸었다. 교통편을 여러 번 갈아타긴 하지만, 서울을 가로질러 다니는 출퇴근길에 비해 고되지 않았다. 붐비는 사람들 틈에 끼여 까치발로 다녀야 하는 서울의 지옥철과는 다르게 인천으로 향하는 길은 숨통이 트였다. 구석구석이 도로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함을 체감했다. 부평역에 급행열차가 다니는 사실을 몰라서 출근 도중 백운역을 지나쳐 동암역에 다다랐을 때는 머리가 새하얗진 적이 있지만, 이내 급행 정차역을 익히며 서울까지 편리하게 오갈 수 있었다. 그리고 부평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지하 통로에 자리 잡은 핫바 가게와 빵, 커피, 김밥을 파는 매장들이 헛헛한 출퇴근길을 위로해주는 작은 행복이 있다.

일터를 떠나, 부평을 가슴으로 처음 느낀 곳은 부평역 주변에 미로처럼 펼쳐진 부평역 지하상가이다. 가끔 퇴근길, 집으로 직진하는 발걸음이 탈선하여 부평역 지하철역 개찰구를 빠져나간다. 화장도 지워진 추레한 모습일지언정 번쩍이는 형광 불빛 아래에 혼자 있어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익숙한 지하세계가 펼쳐진다.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옷가게와 화장품, 액세서리 가게의 판매원들은 물건을 팔기 바쁘고, 여러 사람 틈에 끼어 반짝이는 상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익명성을 즐긴다. 천 원에 세 개짜리 싸구려 머리끈값을 지급하면서도 언제나 손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지하상가 어느 가운데에 서서 그동안 내게 지워진 역할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낀다. 그때만큼은 잠깐 스쳐 가는 남인이 되어 열심히 어딘가로 향하는 다수의 사람 사이에 서 있으면 까닭 없이 마음이 위로되고,



시간의 흘러감이 아쉽지 않다. 쳇바퀴같이 회사와 집을 오가며 쓸려가고 있는 내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존재감 없는 티끌처럼 날아다닐 때, 오히려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봄비는 사람들에게 기를 뿜고 싶을 땐 부평지하상가로 가면 된다. 지하세계를 벗어나는 출구를 찾아 올라서면 곧바로 하늘이 보이는 상점이 이어진다. 널찍한 도로와 높은 건물 사이에 움튼 거리, 지상낙원이다. 홀로된 존재의 자유로움을 느낄지언정 발을 딛고 향하는 곳은 결국 지하와 지상이 하나로 연결되며 상대적인 관계성을 느낄 수 있는 부평 시내 중심가이다.

부평은 최근 인구수 53만으로 인천에서 인구 수치가 높은 구의 자리를 남동구와 서구에 내주었지만^① 한때 56만의 가장 큰 자치구였다. 인천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고, 연식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평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인구를 5,100만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 중 1/1000 이상 살고 있다고 치자면 적지 않은 수이다.

최근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주민들이 부평을 중년의 보수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떠올린다고 하지만^②, 실제로 연령 구성비가 어떠한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살펴보니 부평 20-30대 젊은이^③의 인구비율이 전국과 서울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④ 중년의 아저씨를 떠올리는 이유가 부평에 노후화된 시가지 건축물이 많고 풍물축제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이미지 때문일까. 혹시 그들도 부평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자주 찾는 장소

부평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동네는 부평동이다. 빅데이터^⑤로 봤을 때, 부평과 관련된 검색지역에 생활, 음식점, 패션·뷰티, 레저, 기타서비스업, 취미오락, 2차산업, 관광 인기업종 관련 검색장소는 모두 부평동에 소재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 혹은 풍문으로 부평을 아는 사람은 '부평=부평동'일 수도 있다. 부평구를 세로로 가르는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중앙 하단부에 위치한 부평동에는 대표적 장소성이 깃든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지하상가가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상에서 '인천 부평'과 연관된 이슈어 랭킹 30위 안에 드는 단어^⑥ 중 장소성의 단어는 부평동, 부천, 서울, 부평역, 부평구, 삼산동이 있다. '부평 문화'연관 이슈어는 부평 문화로,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역, 부평동, 부평구, 롯데백화점이 나온다. 다수가 경험하는 부평의 장소는 '서울에서 가깝고 부천 인근에 있는 도시(바로 인접한 곳이 삼산동)로 롯데백화점, 부평역, 부평문화로, 부평 문화의 거리로 이어지는 부평동'이다. 이는 부평역 일대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소셜 분석은 정확하게 정보를 찾는 의도보다는 트렌드를 검토하는 목적이므로 범용적인 키워드가 잡힌다. 결과에 따르면 부평아트센터는 순위권 밖으로 제한적이었다.^❶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백 개의 공연과 축제, 행사가 치루어지는 부평아트센터에서 겪는 일보다 일상적인 경험, 이를테면 부평 역사쇼핑몰과 지하상가에서 이뤄지는 친구와의 쇼핑이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즐기는 데이트 맛집, 롯데백화점에서 득템한 물건에 관한 일을 SNS에 기록하고 알린다. 그게 아니라면 수천만 가지의 보편적인 경험과 비교해 부평아트센터의 콘텐츠 수가 부족하거나, 인싸^❷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일지도 모른다. SNS에 글을 올릴 정도의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거지나 공원을 중심으로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것 보다는, 걷는 동안 갖가지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거리와 공간을 찾는 것이다.

보통 부평에서 약속을 잡을 때, 도보로 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꼽히는 곳도 지하상가 분수대나 지하상가 중앙, 부평 문화의 거리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이다. 이러한 약속 장소는 부평에 깊이 입덕하기 전에는 외부인이 알지 못하는 부평의 생활문화이다. 이미 부평 주민들이 알고 있는 답을 여러 데이터와 자료를 찾으며 검증했다. 헛발질하다가 겨우 공을 빚겨 찬 기분이다. 그래도 덕분에 부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가 바라는 힙한 곳

배후도시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이고, 그다음이 상권, 교육 시설, 환경이다.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지리·교통 요건으로 인해 부평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서남권의 주목받는 상권으로 부상했다. 1962년 처음으로 설치된 부평시장이 번창하여 1971년에는 부평자유시장으로 바뀌고, 부평진흥자유시장도 함께 생겼다. 1978년 부평백화점과 대도백화점이, 1979년 현대시설을 갖춘 부평종합상가와 부평로지하상가가 설립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점에 부평지하상가를 갖추었고, 1980년대에는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중앙지하상가가 생겼다. 특히 부평역지하상가는 경인선과 인천1호선 교차하는 인천 부평 역에 1,400개가 넘는 점포로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부평지역 상권은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티백화점, 주영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생겼지만, 운영의 부침을 겪으며 사라졌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상권과 접근성과 연계성이 용이한 덕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9년 매각을 앞두고 있어서 부평역 중심의 활력적인 분위기가 휘청할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상적으로 찾는 장소가 사라지면, 연결된 수 가지의 생활방식과 문화지형이 사라지거나 바뀌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나.

비단 백화점만이 아니다. 휘몰아치듯 바빠 흘러가는 유행 탓에 오늘도 순식간에 각양각색의 상점들이 들어서고 이내 사라진다. 마음 줄 새 없이 금방 사라져 잊혀버리는 공간이 아쉽다.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며 더욱 다채로워지는 듯하지만, 회색빛으로 비슷비슷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택하는 곳은 여유롭고 안락한 공간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힙한 공간은 결국 통상적인 조건이 충실하게 갖춰지고, 문화적인 충족요건과 쾌적함이 더해진 곳이다.

다행히 가보고 싶은 알찬 공간이 부평에 많다. 오래된 안정감을 주는 곳부터 젊은 청년이 만든 아기자기한 신생공간까지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 일부를 기록해둘 뿐이다. 보통의 우리들은 주인공의 취향이 발현된 매력적인 곳을 끝끝내 찾아내어, 새로이 평범한 사연을 써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거친 흐름을 이겨낸 공간은 지역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고, 문화를 지탱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오늘도 그런 곳을 찾아 사람들의 기운을 쫓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 ❶ 2018. 7 기준 남동구 538,976명, 서구 534,164명, 부평 529,722명
- ❷ 2018. 8. 1.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부평구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 ❸ 2018. 5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 따르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함.

❹ 세대	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전국	8.57	10.11	13.47	14.62	16.67	16.30	10.83	6.42	2.68	0.34	0.34
	18.68		28.09		32.96		17.24			3.36	
서울	7.37	8.91	15.16	16.14	16.47	15.87	11.34	6.31	2.15	0.27	0.01
	16.27		31.31		32.34		17.64			2.43	
부평	7.65	9.46	14.57	14.76	16.15	18.06	10.99	5.64	2.35	0.34	0.03
	17.10		29.33		34.20		16.64			2.72	

기준 : 전국인구 51,422,507명, 서울인구 9,747,871명, 부평인구 526,974명
출처 : 통계청 2017 인구통계, 2018. 10 부평구 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

- ❺ 네이버 데이터랩 datalab.naver.com
- ❻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2018년 3개월 단위로 검색.
- ❼ 부평구문화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운영하며 매주 여러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지만, 노출빈도를 집계하는 빅데이터에 드러나지 않음.
- ❽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



허리·무릎 걱정되면
나누리병원

부흥오거리 & 주안 동양장 사거리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한길안과
눈 건강을 위한

오양원
012-504-3730

부평역
이사·혼수

이사·혼수
특별가치

LOTTE Mart 롯데시네마

P
주차장

게이렌트

노래

3
부평시장

화창하게 걷는 보통의 부평

내 친구의 산책

발행인	황유경
총괄	김유정
기획	노수진 슬로보트
책임편집	노수진
저술·사진	슬로보트 김용호 김동균
디자인제작	아이드디자인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내 bpcf.or.kr

※ 수록된 내용을 전자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